

# 메주고리에



Medjugorje

October, 2006 제35호



평화의 모후 선교회



##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변함 없이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완전히 회개하라고 너희 모두를 부른다.  
어린 자녀들아, 하느님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을 다해  
찾고 있는 평화를 하느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인들의 삶을 본받아 그들을 너희들의 삶의 모범으로 삼아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06년 9월 25일 메시지

### 자비와 사랑, 선하심의 어머니께 드리는 봉헌기도

오, 나의 어머니여,  
자비와 사랑과 선하심의 어머니이시여,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오며 저를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어머니의 사랑과 선함과 은총으로 저를 구해주소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오니 온전히 저를 소유하시어 저를 보호해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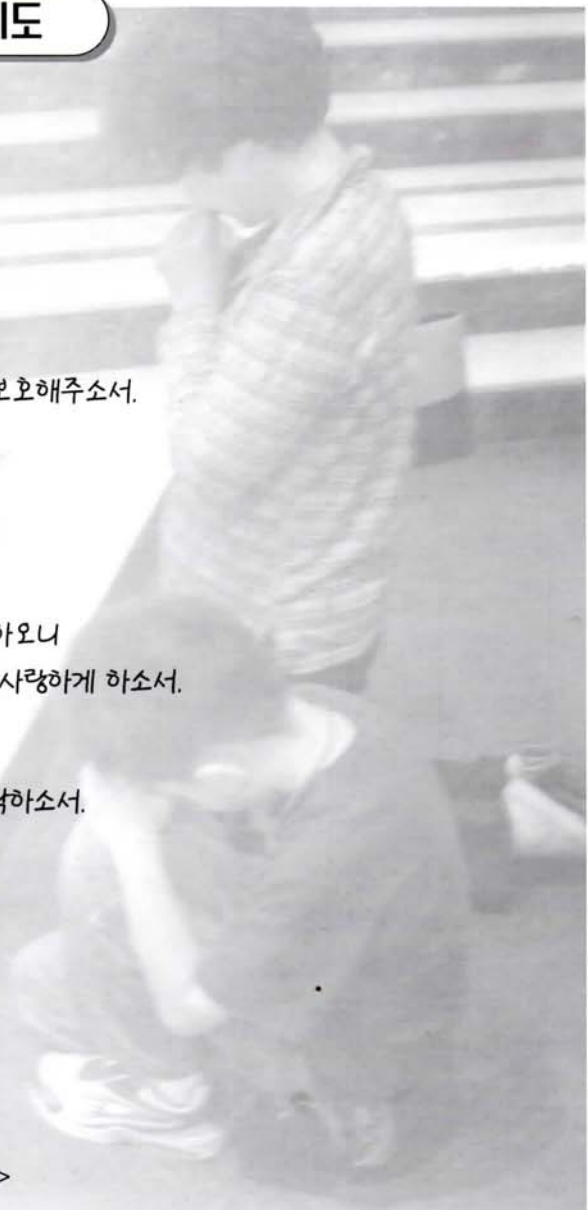
선하신 성모 마리아시여,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의 선함을 제게 주시어 천국에 들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어머니의 그 영원한 사랑을 청하오니  
제게도 그 은총을 허락하시어 당신처럼 저도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오니  
어머니를 위하여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은총을 제게 허락하소서.

온전히 저를 봉헌하오니 저의 모든 발걸음을 살려주소서.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의 충만한 은총이시기에  
절대로 저를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소서.  
행여라도 제가 그 은총을 잃었을 때를 위하여 청하오니  
그 은총을 다시 제게 허락해주소서. 아멘

< 이 기도문은 1983년 4월 19일 성모님께서 내적 담화자  
엘리나에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문입니다. >



##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 교황님과 사제, 수도자들을 위하여...
- 성모님, 어머니 마을과 모든 봉사자들을 보살펴주세요.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신부님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세 아들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제 되기를...
- 성모님, 태중의 아기와 데레사의 건강을 위하여...
- 세실리아, 토마스 가정을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과 모든 낙태아들을 봉헌합니다.
- 성모님, 이동우(제노)가 성체를 모시도록 도와주세요.
- Thomas Russell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 아들 요셉이 하느님을 알게 되길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 유광문 마르첼로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원들의 모든 지향과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미주 순회를 하는 요조 신부님과 음악봉사자들을 위하여...
- 각 지역의 봉사자들, 평화의 모후 선교회를 도와주시어 성모님의 뜻을 이루소서!
- 심장이식을 한 00의 건강을 항상 지켜 주시고 영혼을 돌봐주세요.
- 친구 모함으로 폭행을 당해서 병에 걸린 조카를 봉헌하니 도와주세요.
- 가정의 성화와 동생과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으로 돕고 싶어요.
- 성모님, 두 아들의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그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세요.
- 제 삶에 대한 하느님의 뜻과 오로지 하느님께 겸손으로 의탁하게 해 주세요.
- 000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 사랑과 평화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형제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 서로 일치하여 삶의 가치를 주님의 성 가정을 이루도록...
- 가족간의 화해와 새 사업체를 잘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잘 써주소서.
- 성모님, 토마스 형제가 믿음과 사랑으로 청하는 지향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성모어머님, 방황하는 아들의 미래와 주님께로 돌아와 마음의 평화를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 성모님! 투병중이신 아버님과 간호하시는 어머님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찾게 해 주세요.
- 성모님, 딸의 결혼을 앞두고 온 가족이 마음을 다해 지혜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 성모님, 마음의 상처를 받은 동생과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주세요.
- 동생 가족에게 마음의 평화와 믿음을 주시고 안정된 이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세요.
- 윌리암과 실비아의 한국직장,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 경제적인 축복을 위하여...
- 성모님, 성가정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수 다니엘 가정을 봉헌합니다.
- 사랑하는 성모님, 김글라라 수녀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 모든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와 평화를 위하여
- 성모님, 어머니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도록 보살펴주시고 동생에게 좋은 직장 and 믿음의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봉헌 미사 때와 9월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요조 조브코 신부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사제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우주를 담고 있는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 모든 창조물에는 하느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에 안겨있는 우리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이사 43:4)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머니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이사 49:15)

하느님, 아버지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분께 감사 드려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3600 개가 넘는 재능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즉, 믿음은 본성이기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창조하신 그분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을 체험하고 느끼고 믿게 됩니다. 라디오를 비유로 생각해 보십시오. 라디오는 안테나를 통해서 공중의 전파들을 받기 때문에 안테나의 방향을 잘 돌려야 방송국에서 하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잘 만나기 위해 좋은 자리에서 믿음의 안테나를 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확신을 원합니다. 확신이란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여 그분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그 분이 주시는 말씀들을 만나고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미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먹이를 구하기 위하여 거미줄을 칩니다. 그리고 그 한 귀퉁이에서 먹이가 거미줄에 걸리면 그것을 먹습니다. 어느 날, 빗방울이 거미줄을 건드려 흔들리자



거미는 먹이가 걸린 줄 알고 나갔다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자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먹이를 기다리던 거미는 두 번, 세 번, 같은 일이 반복되자 거미줄에 무슨 잘못이 있는 줄 알고, 이곳 저곳을 확인하다가 그만 거미줄의 중심부분을 잘랐습니다. 그러자 거미줄은 끊어지고 거미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떨어지면서 자신이 만든 거미줄에 얽혀서 숨이 막혀 죽어 갔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잃은 사람은 가장 근본적인 하느님과의 관계를 잃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인간과 하느님과의 질서를 정해주는 선물이며 하느님은 우리들의 구체적인 아버지이십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해 당신이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느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무릎에서 놀고, 그분의 어깨에서 무릎을 타면 안전합니다.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교육시켜주지 않으면 믿음 없는 탕자들이 됩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으며 발전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은 부모들의 믿음을 통해 가정 안에서 성장합니다. 믿음은 마치 비행기의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하느님을 향해 우리를 상승시켜줍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느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자신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찾아서 동분서주(東奔西走)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을 찾아 다니다가 믿음을 잃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희망을 잃어 버리게 되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수많은 질병이 함께 옵니다. 하느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많은 선물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가족과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M**

## 오, 나의 사제들이여!

2000년 3월 28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사제의 영혼이여, 나는 골고타 언덕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고 그대를 불렀습니다. 나는 사랑과 희생의 극치인 내 희생의 성찬례를 재현하면서 지속적인 축복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대를 선택했습니다. 특별히 그대를 나의 사랑으로 보살피며 성심으로 축복하니 세속에 물들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가끔 그대의 눈과 마음은 외적인 것들에 머물면서 자신의 거룩한 사제적의 의미와 말씀 속에 깊이 숨어있는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하느님의 구원계획을 완전하게 깨닫고 실행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체적 사랑의 신비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성부의 뜻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대리자들이여! 그대들의 시간은 나의 것인데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사제로 선택된 그대들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다면 오직 내 성심에 머무르며 자신의 삶을 봉헌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나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선택되어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봉헌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대들이 이렇게 큰 은총으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의 마음과 뜻을 이 세상에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선택된 그대들의 사명이 세상에 뒤섞이지 않도록 늘 조심하십시오.

그대들은 마치 신부를 위한 신랑처럼 내 곁에 머물도록 늘 준비하십시오. 발걸음을 멈추고 그대가 나에게 한 첫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내 성심 안에 쉬어가십시오. 내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위탁하는 그대들의 기도와 사랑을 내 성심과 충만하게 일치시켜 주시고 그대



윤종식 디모데오 신부  
의정부 교구 / 로마유학 전례학 박사과정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위원

들의 순결한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위해 거룩한 성체성사를 제정했기에 내 성심 안에 그대들을 쉬게 하고 많은 선물을 베풀어 주고자 합니다. 그대들은 내 성심 안에 머물며 자신들의 사명을 바라보기 위해 멈추십시오. 그대들은 이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나에게 되돌아오기를 바라며 내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그대는 내 성심의 참된 신부이며, 사랑과 믿음을 충만하게 하는 은총 그 자체입니다. 더이상 과거를 되돌아 보지 말고 매 순간을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대의 미래를 나에게 위탁하십시오. 나는 그대의 삶과 마음 안에 내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동반하며 많은 은총을 주겠습니다. 그대는 선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세상의 심판에 관심을 두지 말고 겸손하고 순박한 마음으로 거룩한 교회에 순명 하십시오. 오직 내 사랑의 신비를 향해 마음을 비우고 머물며 내가 주는 힘으로 그대의 형제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나를 위해 창조된 사제의 영혼이여, 나에게 그대의 모든 마음을 주고 찬미하고 사랑하면서 나의 연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그대를 내 사랑과 성심이 주는 모든 선물들의 전달자가 되도록 온전히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대가 선하고 관대한 연민의 마음을 간직하고 사제직을 살아 간다면 내 성심이 주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찾을 것입니다. 그대는 항상 내가 주는 진리와 사랑에 불타올라 다른 이들을 성장시켜주고 내 성심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대의 시선이 늘 내 성심을 바라보며 머물도록 하십시오. 나는 항상 그대와 함께 있으며 내가 주고자 하는 사랑과 은총으로 그대를 축복합니다. 아멘.

M



## '거룩한 로사리오'를 가지고 싸워라

- (275)10월 7일. 로사리오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탄'과 그의 교활하고 위험한 유혹에 대항해서, 또 '악'의 힘센 군대에 대항해서 너희가 날마다 싸우는 싸움에서, '주님의 천사들'이 주는 특별한 도움 외에 너희가 사용할 필요가 있는 불패의 안전한 무기가 있다. 이 무기가 다름아닌 너희의 기도이다. 기도로 너희는 원수가 집어삼킨 영토를 언제나 그에게서 빼앗아 올 수 있고, 최악의 사막에 선의 싹이 돋아나게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탄이 포로로 잡아두는데 성공한 엄청난 수의 영혼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 기도야말로 강력한 힘이어서 원자핵 반응보다 더 위력 있는 연쇄 반응을 선(善)에 일으킬 수 있다.

내가 특히 좋아하는 기도는 '거룩한 묵주기도'이다. 그래서 나는 많은 발현을 통해 항상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호소한다. 이 기도를 바치는 이들과 내가 함께 기도하며, 엄마로서의 불안과 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이를 바칠 것을 당부한다. '거룩한 묵주기도'가 그리도 효과적인 까닭이 무엇이었느냐? 왜냐하면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여서 너희로 하여금, 영혼이 작고 온유한 사람,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 되도록 길러 주기 때문이다. 사탄은 오늘날 교만한 정신, 하느님께 반항하는 정신으로 무엇든지 성공적으로 제 손아귀에 넣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가 무서워하는 것은 너희 천상 엄마를 따라 작음과 겸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다면 자들이나 거만한 자들은 묵주기도를 업신여기는 반면에, 나의 작은 이들은 깊은 애정과 기쁨을 느끼며 이 기도를 바치고 있으니, 나의 작은 이들이란 가난한 이들, 어린이들, 겸손한 이들, 고통 받는 이들, 그리고 내 호소를 기꺼이 받아들인 굉장히 많은 수의 신자들이다.

이 작은 이들의 겸손이 다시금 사탄의 교만을 쳐부수리라. 그리하여 나는 튼튼한 쇠사슬이 아니라 더없이 약한 줄인 '거룩한 묵주'로 '붉은 용'을 결박하리니, 그때 그는 결국 굴욕적인 참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와 함께 바치는 기도이다. 너희를 위

해 기도해달라고 나를 부를 때마다 나는 너희의 그 청을 들어 준다. 내 음성을 너희 음성과 하나가 되게 하면서 너희의 기도에 나의 기도를 합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만큼 더 효력이 있다. 너희 천상 엄마는 능한 전구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청할 때마다 항상 얻는다. 예수께서 당신 어머니가 청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교회와 인류의 목소리를 일치시키는 기도이다. 결코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만민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

이 엄마 마음의 통로를 거쳐 무한히 소중한 보물이 너희 차지가 될 수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 성심'의 불타는 신적 사랑이다. 이 기도를 올리는 동안 너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소서.'(마태 6,9-10 참조)를 자주 외움으로써 성부께 완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성장해간다.

그리고 너희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를 외움으로써 지존하신 성삼을 영원히 흠송할 수 있도록 성장해간다. 너희 천상 엄마는 오늘, 너희가 대전투에서 '태양을 입은 여인'의 지휘를 받으면서 가장 힘있는 무기인 '거룩한 묵주'를 가지고 싸우라고 당부한다. 다음의 내 요청들에도 협력해 다오: 기도하며 형제애를 나누는 '다락방' 모임들이 많아지게 하고, 티없는 내 성심에 너희를 봉헌하며, '거룩한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는 일이다. 그러면 힘센 '붉은 용'이 묵주 줄에 묶여 그의 활동 범위가 갈수록 좁아질 터, 마침내 아무 해도 못 끼칠 정도로 무기력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티없는 내 성심의 승리라는 기적이 만민의 눈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리라. **M**

(이 메시지는 파티마 성모님께서1973부터 1997까지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내적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당신의 것이 되어 하느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리유보 신부 <메주고리에 본당>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도록 오늘도 초대한다. 너희는 기도 안에서 비로소 나와 내 아드님 곁에 있을 수 있으며, 이 세상 삶이 얼마나 짧은지 보게 될 것이며 너희 마음에 천상을 향한 희망이 솟을 것이다. 기쁨이 너희 마음에 차오를 것이며 강물 같은 기도가 흐를 것이다. 그럼으로써 너희들의 말은 너희를 창조하신 하느님을 향한 꾸준한 감사가 될 것이고 거룩해지겠다는 희망은 현실이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에 주어 고맙다."

2006년 8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하느님은 우리를 회개시켜서 영육간에 거룩하고 건강한 자유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25년 내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신다. 겸손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것처럼, 성모님께 마음을 열어 놓은 겸손한 사람만이 사랑 가득한 그분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신다. 엄마가 자식에게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식의 마음에 새겨주고자 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어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누군가 기도 보다 더 쉬운 길이 있다고 속삭이면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묻지만 가장 좋은 기도는 신뢰를 가지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저는 마음으로 기도 할 줄도 모르고 마음은 왜 이렇게 단혀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물론 기도를 시작하는 결심이 힘들지만,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가볍고 자유롭게, 기쁨이 넘치는 기도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과 인간적인 본성은 원죄와 악마로 인해 상처를 입

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유혹에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간다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성모님께서 많은 메시지에서 "너희가 기도 할 때, 비로소 나와 내 아드님 곁에 함께 있을 수 있으며,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한다면 강물 같은 기쁨과 기도의 힘을 느끼고 열렬한 희망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느님을 향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다. 하느님은 창조주이시자 우리 아버지이시다. 성모님은 어머니로서 고통들은 부활과 함께 끝날 것이기에 우리가 믿음과 경험을 통해 오직 하느님만이 그 기쁨과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줄 모른다면 아무리 많은 은총들도 무용지물이 되기에 우리는 고통과 시련의 십자가까지도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한다. 늘 보살피 주시는 성모님과 함께 우리가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 받는 존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한다

**마침 기도와 강복 :**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신 평화의 여왕이시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우리와 가족들의 마음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오 마리아여, 사랑과 기쁨이 없는 곳에서 사랑과 기쁨을 찾아 헤매는 모든 젊은이들을 보살피시어 그들을 도우시고, 길 잃은 청소년들을 이끌어 주소서. 저희 손과 발이 당신의 손과 발이 되며, 저희 마음이 당신 마음이 되어 세상 곳곳에 하느님을 전하고 그분의 사랑과 왕국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 평화의 여왕이신 우리의 어머니를 통해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젊은이들, 모든 기도회 회원들에게 강복하시고 보호하시며 길이 머무소서. 아멘 **M**

## 성모님의 사제 요조 조브코와의 만남 (1)



성모님의 사제 요조 조브코의 삶을 소개하면서...

남기옥 마르타 선교학 박사

이 책은 사브리나 꼬비치 자매가 요조 조브코 신부님을 인터뷰 한 내용이다. 앞으로 한국어로 출판될 예정이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사제 요조 조브코가 어떤 사람 인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소식지에 게재하기로 편집진과 결정하였다. 또 금년 11월 미주지역 방문을 앞둔 요조 조브코 신부님에 대해 미리 소개하는 것도 그 분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독자들이 이해하고 받아 들여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희망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이 인터뷰 내용은 요조 신부님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삶을 망라한 자서전적인 인터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요조 신부님안에 존재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자신의 모습을 친구에게 이야기 하듯 진솔하고 담담히 풀어 놓는 요조 신부님의 인간적인 면과 진실을 엿볼 수 있다. 인터뷰를 하다가는 호탕하게 웃어버리는, 혹은 유년시절 동생을 잃었을 때의 아픔이나, 사제로서 강제로 유고슬라비아 연방국의 군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시절의 고통, 메주고리에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공산정부에 의한 강제수용소의 교도소

생활 속에서 느껴야 했던 인간적인 비애, 그러한 고통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제 조브코의 모습을 대하면서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또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시는 요조 신부님의 모습을 보면 성모님은 무척 행복하신 분이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기적이나 치유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찾아 헤매는 순례자들, 그런 것들이 엄청난 것인 양 떠벌리는 신자들을 향해 일침을 가하는 순수 신앙을 지키려는 모습, 교황님과 교회를 향한 그분의 애정과 충실함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자서전적 인터뷰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고 책의 출판을 극구 보류하던 조브코 신부의 지극히 겸손하고 신중한 모습도 목격하게 된다. 덜 여물어 무엇인가 시큼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모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제 조브코의 감추어진 면을 독자들에게 알리고픈 마음의 열정으로 바쁜 하루일과 내내 통역을 하고 돌아온 피곤한 몸이지만 밤잠을 줄이면서 감히 번역의 여정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독자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 2006년 8월 성 알렉산드로 축일에 역자 -



## 독자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사브리나 꼬비치

오늘날 메주고리예를 찾아 오는 순례자들은 요조 신부님을 만나려면 모스타르로부터 서쪽 방향에 있는 시로키 부리엑 수도원을 찾아가야 한다. 이 곳의 수도원의 건물 대부분은 19세기 중엽에 지어진 것으로 거룩한 동정녀의 승천 성당으로 불리는 본당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최초로 오토제국으로부터 수도원 건축허가를 받고 지은 곳이기도 하다. 터키인들의 지배에서 해방됨을 의미하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세계 2차 대전말 프란치스코회 수도자들에게 배교를 강요하는 공산당원들을 거부하며 살해 당한 30명의 수도회의 순교자 무덤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존재를 재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요조 신부님의 강연을 듣기 위해 전세계에서 몰려오는 수천만명의 순례자들로 현지의 열심한 주민들이 미사를 참석할 자리조차 없을 지경이다. 이 수도원의 'Franjevačka Galerija' (프란치스코 칸렐리)라고 불리는 2층 건물에 예술을 소중히 여기는 수도회의 조각이나 그림이 자주 전시되고 있다. 프란치스코 칸렐리 2층에는 90년대 초반 내전으로 발생한 전쟁 고아들을 위해 요조 신부님의 사무실과 신부님께서 결정하신 "보스니아 전쟁고아들을 위한 국제 대부대모협회"와 자원봉사자 사무실이 있다. 봉사자들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2-3개의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하루에도 수백통씩 '걸려오는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문의와 편지들을 읽고 답하느라 잠시도 전화와 컴퓨터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많은 전쟁 피해자들 중에서도 가장 도움이 시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주 "긴급한 기도"를 청하는 수많은 전화가 걸려오기도 한다. 신부님과의 대담을 준비하면서 가끔 이곳 사무실에 올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지내다 보면 왠지 내가 이방인처럼 느껴진다. 요조 신부님의 사무실은 햇볕이 잘 드는 곳이다. 창문 곁에 놓여진 멋진 조각이 새겨진 큰 책상은 약 20 여명이 둘러 앉아 회의를 할 수도 있다. 그 책상 위에 덮여있는 유리 밑에는 여러 조각의 메모들과 계획서, 고아들이 그려 준 그림들과 글들로 진열되어 있다. 사무실 벽 전체를 둘러싼 검은 나무로 만들어진 책꽂이는 많은 책들이 잘 정돈되어 있으며, 그 책장 위에는 아프리카, 중국, 인도 등등... 전 세계를 다니시며 강연회를 할 때 받은 기념품들인 성모님상, 조각, 그림들로 가득 차 있다. 시로키부리엑에서의 모든 인터뷰는 요조 신부님의 개인 사무실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서 이루어졌다. 오랜 시간 신부님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단 한 가지 희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즉,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요조 신부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열렬한 희망이었다. 이런 나눔의 기쁨이 신부님과 나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책을 읽게 될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 ● 요조 신부님의 유년시절과 부모님 ●

질문 : 요조 신부님, 어린 시절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향은 어디신지요?

요조 신부 : 저는 1941년 3월 19일 시로키 부리엑 (Brijeg)에서 가까운 곳에서 태어났어요. 이 곳 사람들은

제 고향을 모스타르스코 블라토(Mostarsko Blato)라고 부르는데, 아주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어서 포도와 무화과, 복숭아 등이 자라는 곳입니다. 제가 자란 마을에서 일손을 멈추고 잠시 쉴 때면, 이런 커다란 과일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그 지역의 평화로움과 모든 멋진 전경을 즐

기곤 하지요. 제가 살던 마을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 어린 제게 그 시냇물은 세상에서 가장 큰 강물이었어요. 저는 열 명의 형제자매로 남자 다섯 여자 다섯이었고 저는 여덟 번째 아들이었어요. 2차 대전 초반이었던 그 당시 유럽은 불타고 있었고, 악의 힘이 막 그 모습을 드러내던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먹여살려야 하는 자식들이 많다고 단 한 번도 뱃속에 든 자식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지요. 주님께서는 저와 저희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좋으신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마을 중심에 학교가 생겼습니다. 4학년까지 있는 초등학교였어요. 저희 마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고, 그 학교 건물의 빨간 기와지붕을 저는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 곳에는 선생님들을 위한 관사가 있었고 한 교실에서 4학년까지 모두 합반으로 공부했습니다. 아주 커다란 체리 나무가 서있는 운동장도 있었습니다.

질문 : 신부님께서서는 가톨릭 집안 태생이신데, 부모님과 가족들도 열심히 집안이었나요?

요조 신부 :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기도는 모든 것의 척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줄 알고 자랐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보면서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놀라운 힘을 배웠습니다. 피곤하고 졸음이 오더라도 잠자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항상 가족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부모님은 행여나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절대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고 기다렸으니까요. 들과 밭에서, 양떼와 염소떼, 소를 치던 곳에서 모두 돌아와야 비로소 가족 기도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질문 : 신부님의 부모님께서서는 농부셨군요?

요조 신부 : 그래요. 밭을 갈 때면 양들과 그 새끼들, 어미를 잃고 울어대던 아주 작은 어린양들의 울음소리... 어미 잃은 어린 양들의 어미를 찾아주던 일들 등...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는 유년시절을 매우 냉엄한 공산시절속에서 보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심어야 할 채소는 물론이고 그 당시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담배 재배의 생산 양까지도 자신들이 결정하곤

했어요. 심지어는 몇 마리의 양을 당에 바쳐야 하느니, 어쩌니 했지만 결국 몽땅 빼앗아 갔습니다. 마을의 닭장에는 닭도 없었고, 달걀도 없었어요. 이렇게 자주 다 빼앗아 가니까 주민들은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필요한 양식을 사러 가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농산물을 빼앗으러 오던 공산당원들에 대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주민들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적일 뿐이었지요. 마을 주민들은 그런 공산당원들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억지로 일을 해야 하는, 한 마디로 공산당을 위한 노예시절을 살았던거지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서도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희생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신앙에 대해서 만큼은 분명한 삶의 가치관을 갖고 계셨기에 늘 확신을 갖고 믿음과 기도의 힘을 자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를 무사히 지낸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느님께 의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당시의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면 그 때의 두려움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느님을 만나고 위로를 얻던 시절이기도 했어요.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특별히 어린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목소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모아지던 그 때였는지... 우리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하거나 논리적으로 강요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 보다는 훨씬 깊이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였지요. 내가 자란 고향에서는 이런 기도소리를 마을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고, 하느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고 자라는 것이 어린 우리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주의의 공산당 정부는 마을 주민들의 이런 믿음을 없애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하느님의 존재나 신앙은 부정되었고, 그리스도교가 사람들을 조종한다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신앙은 아편이라고 위협하며 가르치는 모든 말들은, 우리들이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우리들은 어렵지만 부모님들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옹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 신부님의 부모님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요조 신부 :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농민이셨지만 책읽기를 즐기시고, 글을 쓰실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좋은 가정 교육을 받으신 분으로서, 유식하고 지혜롭고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과 주관이 강한 분으로 공산 정부나 경찰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신뢰심을 아버지에게 느낄 수 있었고, 무척 활동적이고 열정과 힘이 넘치셨어요. 한번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시면 그 일을 마무리 할때까지 끝까지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린 저에게 아버지는 항상 힘이 넘치셨고, 지혜로운 아주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놀아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아마 그때는 지금처럼 부모들과 함께 즐기는 놀이나 장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소리를 내는 어린 암양이나 숫양, 말, 소등 항상 동물들과 같이 지내는 넓고 푸른 들판이 우리들의 놀이터였어요. 요 즈음과 같이 생명이 없는 플라스틱 장난감을 가지고 놀 필요나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질문 : 신부님과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신부님도 엄마 품에 안겨서 응석을 부려 보신 적이 있나요? 어머니께서 만드시는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셨는지요?

요조 신부 : 저희 어머니는 늘 부드럽고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질 않는 분이였어요. 참을성없이 소리 지르고, 위협하는 말투나, 혹은 우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제가 본 어머니는 어려움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많으셨고, 항상 잘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모습이 놀라움기만 했던 무척 이상적인 여성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말보다도 술선수범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실 줄 아는 부드러운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부엌이나 집안일을 하며 보내셨습니다. 열명의 자식들을 돌보시며 열두 명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셔야 했으니, 생각해보세요! 상상이 될 겁니다! 어머니와 저의 관계

는 아주 단순하고 음,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을 만나지 마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조심하거라” 등의 말씀을 한 번도 제게 하시지 않으셨구요. 저는 어머니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며 내재하는 기쁨을 느낄 줄 아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서는 자식들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시고 또, 들어주는 대화를 하실 줄 아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남자형제들이나 누나, 여동생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무척 강하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 당시 우리 마을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도 없었어요. 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여행담을 들려주면, 저희는 그것을 들으면서 몇 시간씩 자동차로 달려도 산등성이 하나 만날 수 없었다는 게 가능할까? 도대체 산등성이 하나 없는 장소가 존재한단 말인가?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소를 치는 걸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었지요. 나~ 참! (크게 웃으신다!) 또 어떤 집에는 어린아이들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싶어서 시골에서 자란 우리들에게 상상이 안되는 일이었지요. 우리가 자랄 때는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점심에 뭘 먹고, 저녁에 뭘 먹어야 하는지 훤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우리가 가게로 심부름 하는 일은 고작 소금을 사오는 것이었고 성탄 때가 되면 식용유를 사는 것 외에는 전무하다시피 했으니까요. **M** (다음호에 계속)





## 묵주기도는 너희 삶에서 기적을 이루어 준다

1. 유혈의 전투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너희가 오늘날 사용해야 하는 무기이다. 이는 또한 너희를 내 마음에 묶어주는 황금 사슬이요, 징벌의 불이 너희와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지 못하게 막아주는 피뢰침이요, 나로 하여금 항상 너희 곁에 있게 하는 안전한 수단이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2648)

2. 그것은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이므로 사탄을 쳐부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이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1108)

3. 내가 친히 준 무기인 나의 기도, 곧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인 '거룩한 묵주기도'를 이 전투에서 사용하고자 하지 않거나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두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도 놀랄 것 없다. 그것은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이므로 사탄을 쳐부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이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1007-9)

4. 너희가 나와 함께 드리는 이 기도로 현재의 모든 인간사 뿐 아니라 장차 닥칠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기도로 마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도 얻을 수 있고, 간절히 열망하는 선물인 평화를 얻을 수도 있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3434)

5. 커다란 '용'을 묶어야 할 사슬은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바치는 기도로 만들어진다. 그 기도가 다름 아닌 '거룩한 묵주기도'이다. 그 사슬은 첫째로 그것에 묶여 있는 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역할, 둘째로 그를 가두는 역할, 마침내는 그의 모든 활동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479,15)

6. 묵주기도는 나와 함께 담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라. 오! 너희는 내게 말해야 하고, 또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마치 엄마가 자기 아기들에게 하듯이, 나는 너희에게 살그머니 말해 주기 때문이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474)

7. 또한 거룩한 묵주기도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아라. 나는 이 기도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에, 너희에게 청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을 정도이다. 루르드의 마싸비엘 동굴의 발현에서 나는 손가락으로 묵주알을 돌리면서 이 기도를 잘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한편, 그 발현을 본 내 조그만 딸의 기도에 일치해 있었던 것이다. 너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면, 함께 기도해달라고 나를 초대하는 셈이 되고 너희가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그래서 내가 정녕 너희의 기도에 일치한다. 이럴 때 너희는 '하늘의 엄마'와 함께 기도하는, 조그만 아이들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탄과 그의 악한 군대와 맞서 싸우도록 너희가 부름 받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전투에서 쓰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묵주 화관이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148, 15-16)

8. 이 묵주기도로 너희는 천상 엄마에게 길 잃은 내 불쌍한 자녀들 가운데 상당수의 구원을 위한 강력한 중재력을 주며, 너희 시대의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티없는 내 성심의 엄마다운 계획대로 안배할 수 있게 해준다. 나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너희가 다락방에서 바치는 묵주기도 전단(=15단)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랑과 구원의 사슬이 되어, 사람들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감싸 안을 수 있고, 너희 시대의 모든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너희 기도에서 오는 힘을 쓸 수 있으니, 엄마로서 전 구하여 환난기를 단축하고, 너희를 기다리는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한다. 이 기도로 너희는 원수의 간계를 꿰뚫어 볼 수 있다. 그의 허다한 속임수에서 몸을 피할 수 있고, 그가 너희에게 야기시키는 술한 위험들에서 너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더욱이 이 기도는 너희를 내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도록 이끌어 준다. 내가 너희의 진정한 인도자요, 보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다른 결정적 시기에도 이미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교회는 승리의 '어머니'인 나에 의해 지켜지고 구원될 것이고, 이는 내 조그만 아기들인 너희가 자주

바치는 거룩한 묵주기도가 내게 주는 힘을 통해서이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184, 2-11)

9. 내가 너희에게 주는 전투용 무기는 너희를 내 성심에 묶어주는 사슬고리, 즉 거룩한 '묵주'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기도를 자주 바쳐 다오. 왜냐하면, 티없는 내 성심에 모인 너희의 사제다운 기도로써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자비를 움직여 -- 이를테면 거의 강청(強請)하다시피 하여 -- 이 시대에 그것이 베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가장 사랑하는 말아들인 교황이 너희를 위해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해 온 신뢰 깊은 기도는, 어머니인 나의 중개로 간구하는 힘있는 기도였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216, 4,7,8)

10. 내가 너희에게 이 기도를 청하려고 여기서 (\*파티마) 발현하기도 했거니와, '거룩한 묵주'로 자주 기도하여라. 인간적인 온갖 수단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세상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은, 너희가 이제 기도의 힘에 모든 신뢰를 두어야 한다는 분명한 표지이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245, 5)

11. '거룩한 묵주기도'가 그리도 효과적인 까닭이 무엇 이겠느냐? 왜냐하면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여서 너희로 하여금, 영혼이 작고 온유한 사람,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 되도록 길러 주기 때문이다. 이 작은 이들의 겸손이 다시금 사탄의 교만을 쳐부수리라. 그리하여 나는 튼튼한 쇠 사슬이 아니라 더없이 약한 줄인 '거룩한 묵주'로 '붉은 용'을 결박하리니, 그때 그는 결국 굴욕적인 참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와 함께 바치는 기도이다. 너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나를 부를 때마다 나는 너희의 그 청을 들어 준다. 내 음성을 너희 음성과 하나가 되게 하면서 너희의 기도에 나의 기도를 합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만큼 더 효력이 있다. 너희 천상 엄마는 능한 친구자이기 때문이다. 힘센 '붉은 용'이 묵주 줄에 묶여 그의 활동 범위가 갈수록 좁아질 터, 마침내 아무 해도 못 끼칠 정도로 무기력해질 것이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275, 1-19)

12. 더 많이 기도하여라. '거룩한 묵주'로 기도하여라.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여라. 특히 가정에서 기도하여라. 그리스도 신자 가정들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관습을 되찾기 바란다. 그러면 가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한 악에서 구함을 받을 것이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289, 8-9)

13. 특히, 거룩한 묵주기도를 매일 바쳐라. 너희의 기도로 오류가 더 퍼지지 못하게 막을 수 있고, 악마의 활동을 저지할 수 있다. 또 악마를 역습하여 그의 활동 범위를 더욱 제한할 수 있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155, 6-8)

14. 특히,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쳐라. 그러면 너희가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커다란 은총을 얻어, 그들 모두의 마음이 사랑과 선의 정감으로 열리게 할 수 있다. 평화가 그렇게 개개인의 마음에 들어 오게 되면, 이어서 가정과 나라, 전세계로 퍼져갈 것이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298, 6)

15. 특히, '거룩한 묵주'를 가지고 기도하여라. 이 시대에는 누구든지 묵주를 강력한 무기로 써야 한다. 묵주기도는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온다. 이 기도로 너희는 주님에게서 크나큰 은총을 얻어 낼 수 있으니, 그것은 사람의 마음들을 변화시키는 은총,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은총, 그리고 온 인류로 하여금 속죄와 사랑과 신적 은총과 성화의 길을 걸어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총이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336,12-15)

16. 특히 거룩한 '묵주기도'를 자주 바쳐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고 영원히 멸망할 중대한 위험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끔 하라고 했건마는!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351, 3)

17. 사랑과 신뢰를 기울여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쳐라. 너희가 나와 함께 드리는 이 기도로 현재의 모든 인간사뿐 아니라 장차 닥칠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기도로 마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도 얻을 수 있고, 간절히 열망하는 선물인 평화를 얻을 수도 있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343, 4)

18. 묵주의 이어진 고리로 세상을 감싸 안아, 만민이 은총과 자비를 얻도록 하여라.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356, 2-3)

19. 거룩한 '묵주기도'와 그 신비에 대한 별도의 묵상, 고해성사, 보상의 영성체, 그리고 내 티없는 성심에의 봉헌을 새로이 함으로써 이날을 내게 바쳐 다오. 이와 같이 하면,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며 저질러지는 모욕들

을 너희가 기워 갚을 수 있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379, 6)

20. 항상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쳐라. 그리고 너희 각자의 나라 전국에 '가정 다락방'을 확장하여라. 이는 불화와 이혼, 낙태의 합법화,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온갖 수단의 정당화로 가정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심각한 악에 대한 치유제이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387, 11)

21. 기도의 증거자가 되려무나. 항상 기도하여라. 더 많이 기도하여라. 거룩한 '묵주'로 기도하여라. 오늘날, 낙태와 이혼과 생명을 거부하는 온갖 수단의 합법화로 그리스도 신자 가정의 생활을 위협하는 크나큰 악에 대한 치유제로서 내가 원하는 '다락방'이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392, 6)

22. 강력한 무기인 거룩한 '묵주기도'로 말미암아, 너희도 오늘날, 교회사와 인류사를 통틀어 나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434, 168)

23. 거룩한 묵주의 보잘것없고 약한 끈이 나로 하여금 세상의 어두운 지배자, 하느님과 그분의 충실한 종들의 원수를 나의 포로로 사로잡게 하는, 힘있는 사슬이 되는 것이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479.3.15-1821)

24. 죄 중에 있는 내 가련한 자녀들 상당수에게 회개의 은총을 얻어주는 데 있어서 기도가 지니는 강한 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를 많이 바치라고 권해 왔으며, 내 조그만 딸인 벨라렛다(루르드의 성녀)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이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바로 '거룩한 묵주기도'임을 너희에게 보여 주었던 것이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488, 5)

25. 너희가 봉헌하는 '묵주기도'는 악과 내 '원수'의 무수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매우 큰 힘을 지니고 있다. 확산 일로에 있는 '사탄'의 지배, 엄청난 수의 내 자녀들이 매여 있는 죄의 종살이, 마음들 속에 독이 스며들게 하는 악, '악마'의 음흉하고 위험한 함정, 어디든지 침투하기에 이른 프리메이슨의 강력한 세력, 널리 퍼지고 있는 사탄 숭배 - 이 모든 것에 거룩한 묵주기도로 대응하

여라. 이는 나의 기도요, 너희의 기도이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519, 2)

26. 매일 묵주기도를 15단씩 바쳐라. 그것은 하느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천국은 이 세계가 처해 있는 상태 때문에 몹시 근심하고 있다. 그 상태는 지금 매우 나쁘다. 기도와 속죄만이 이것을 바꿀 수 있다. (예수 마리아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어머니들에게 5)

27. 겸손함과 정결이야말로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다. 그것들이 없다면 진정한 사랑도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목적으로 묵주기도를 많이 하여라.

(예수 마리아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어머니들에게 7)

28. 스키폴라와 묵주는 성사들 중에 가장 훌륭한 것들이고 너희에게 최대한의 보호를 받게 해줄 것이다.

(예수 마리아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어머니들에게 11)

29. 매번 묵주기도를 마치는 끝부분에 가서, 이 세상에 있는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성모송을 세 번 바쳐라. 그들은 나의 어머니와 나에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모르겠다.

(예수 마리아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어머니들에게 17)

30. 묵주기도를 항상 드려라. 그것은 네가 많은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수 마리아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어머니들에게 19)

31. 특히 그분의 묵주기도를 바쳐라. 그러면 너희들은 평화를 얻을 것이다.

(예수 마리아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어머니들에게 30)

32. 묵주기도를 바치고 스키폴라를 착용하여라. 너희의 가정과 전 세계에 평화를 간직할 수 있도록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예수 마리아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어머니들에게 78)

33.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셨으니, 너희가 묵주를 받아 들고 기도한다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가 있다. 묵주기도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그리고 너희 삶에서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 **M**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1991년 1월 25일) <퍼온 글>



## 그레고리오 연미사의 유래

윤종식 디모테오 신부  
의정부 교구 / 로마유학 전례학 박사과정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위원



(얼마 전에 죽은 영혼들을 위해 드리는 그레고리오 연미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소한 것이지만 영혼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와 그 유래를 알고 싶습니다. CA의 소피아)

사람은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현실에서 보게 될 때,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아쉬움과 회한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레고리오 연미사는 남아 있는 가족들이 세상을 떠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청하는 지향만으로 사망일과 가까운 날로부터 30일 동안 지속적으로 봉헌하는 것이다. 이 미사는 사후, 영혼들이 받아야 하는 심판 때에, 즉 미카엘 대천사가 저울로 그 영혼이 살아 온 행적을 저울질할 때, - 천국, 연옥, 지옥 - 부족한 공로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채워주시기를 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미사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것임으로 이미 죽은 조상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뜻으로도 그레고리오 미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6세기 말경에는, 죽은 영혼을 위해 며칠 동안 끊임없이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대 그레고리오 교황(590-604)은 대화 4편, 55(PL 77,417)에서 유스토(Giusto) 수도자의 명복을 위하여 30일간 드리는 연미사에 대하여 언급했다.

7세기 말엽에는 연옥의 영혼들을 위한 모임이 시작됐으며, 교회와 수도원에서 회원들이 죽었을 때는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상호 명복을 빌어주었다. 이 예식은 특히 레퀴엠(Requiem) 미사를 드린 횟수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탕니(Attigny) 시노드 (762)에서 참석한 주교들과 대수도원장들은 자신들이 죽었을 때 서로 일백 번의 미사를 약속하기도 했다. 1800년대 성 갈로와 라이케나우(Reichenau) 사이에 이러한 약속의 의미로 서로 미사를 드린 예도 있었다. 각 수도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제들이 죽은 이에 대한 소식을 들은 날로부터 3일 동안과 30일째

되는 날에도 미사를 드리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을 종합해보면, 그레고리오 미사는 대 그레고리오 교황에 의하여 붙여진 것이며 청원이 누적되어 죽은 이가 사적 심판을 받을 때, 지난 삶에서의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신심 미사라 하겠다. 18세기 계몽주의가 한참 일 때는 이런 지향의 신심 미사를 금지시킨 교회 규정이(1782년) 있었다. 그 이유는 이런 신심 미사를 빌미로 미사예물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미사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재연하고 기억함으로써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 하겠다. 신심 미사는 마치 신통하다는 무당에게 부탁해서 굿판을 벌리는 것이 아니다. 무당이 하는 굿판은 자신이 원하는 효능과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미사는 하느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시작되기에 그 차원을 비교할 수조차 없다. 미사는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예수님 스스로 재물이 되시어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룩한 은총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미사 중 거룩한 성 변화를 위한 성체 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 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을 위한 중요한 기도문이 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가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과 거룩한 희생을 잊지 않고 살아 가는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첫 자리에 두는 믿음으로 자신과 영혼들의 평화, 이 세상의 평화를 지향하고 늘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드리고 기뻐하는(1테살 5:16-18) 삶을 살아 간다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또한 영혼을 위한 지향 외에도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청원도 받아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생활을 성찰한다면 성모님처럼 믿음으로 주님 곁에 남아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될 것을 믿는다. **M**

## 나는 그의 혈통 중에서 15영혼을 연옥에서 구하겠다

스웨덴의 유복한 가정에서 일곱째 아이로 태어난 비르짓다 성녀는 예수님이 수난 받으실 때 받은 매의 상처와 상처들과 피 흘리심을 묵상하며 늘 열심히 기도하였다. 어느 날, 예수님은 성녀에게 당신의 수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주시며 이 지향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본인과 가족들의 성화와 더불어 죽은 조상들의 영혼들에게도 성총의 은혜로 연옥에서 구해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다. 이 기도문의 초판은 1740년 도울즈에서 출판하여 보급되었고, 1862년 5월 31일 교황 비오 9세의 인가를 받았다.

예수님 : "보아라!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으며 고통 속에 있었는지!"

성녀 : "오, 주님! 누가 주님을 이렇게 못박았습니까?"

예수님 : "나를 멸시하고 내 사랑을 소홀히 하는 자들이 한 것이란다. 나는 5,480번의 매를 맞았다. 네가 나의 고통을 찬미하고 싶다면, 일년 동안 매일 15번의 주의 기도와 성모송을 다음 기도와 함께 (주님이 직접 그녀에게 가르치셨다) 묵상하여라. 그러면 너는 나의 상처들을 날날이 찬미하는 것이다."

### 15기도를 봉헌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은총

1. 나는 그의 혈통 중에서 15영혼을 연옥에서 구하겠다.
2. 그의 혈통 중에서 15영혼을 성총 중에 굳게 보호할 것이다.
3. 그의 혈통 중에서 15죄인은 회개할 것이다.
4. 이들의 기도를 염하는 자는 누구나 완덕의 제일 단계를 달성한다.
5. 그의 죽음 15일전에 나는 그가 영원한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의 거룩한 성체를 줄 것이다.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마시게 하기 위하여

성혈을 그에게 줄 것이다.

6. 그의 죽음 15일전에 그가 범한 죄 모두를 깊이 회개하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갖게 한다.
7. 나는 그에게 적의 공격에 대한 도움과 방위를 주기 위해 그의 앞에 나의 승리의 십자가 인호(印)를 놓을 것이다.
8. 그의 죽음 전에 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올 것이다.
9. 나는 은총 깊이 그의 영혼을 받아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한다
10. 거기에 인도한 후, 나는 그에게 천주성의 샘에서 특별히 한 모금을 주겠다. 나의 기도를 염하지 않았던 자에게는 주지 않는 어떤 것이다.
11. 30년간 죽어야 할 죄(대죄)의 상태에서 살아온 자, 그러면서도 열심히 이것을 기도한 자, 또는 이들의 기도를 염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나 주님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알려라.
12. 나는 그를 강한 시험(유혹)에서 방어하며 지켜준다.
13. 나는 그의 오관(五官)을 보존하도록 항상 지켜준다.
14. 나는 그를 급사(急死)에서 지킨다.
15. 그의 영혼은 영원한 죽음에서 구하여 진다.
16. 그는 하느님과 성모님께 바라던 모든 것을 손에 넣는다.
17. 만일 그가 일생을 방탕하게 살다가 다음날에 죽기로 되었다면, 그의 생명은 연장된다
18. 이들의 기도를 염할 때마다 그는 백일의 한대사를 얻는다.
19. 그가 천사들의 최상계급에 놓여지게 되는 것은 확실한 일이다.
20. 이들의 기도를 타인에게 가르치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계속되는 끊임없는 기쁨과 공덕을 갖게 된다.
21. 이들의 기도를 말하고 또 장래에 말하게 될 장소에 하느님은 그 은총과 함께 계신다.



## 15기도 묵상방법

시작기도 : 오, 예수님!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올리브 산에서 주님의 거룩한 수난을 묵상하고 이 기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강물처럼 쏟아주소서. (...) 오, 예수님! 감미로우신 예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쓰라림을 받으시고 헤아릴 길 없이 인간의 모든 고난을 한 몸에 겪으신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주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기도로 찬미하오니 찬미 받으소서. 오,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 게쉴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시며 당하신 죽음의 불안과 십자가 죽음의 회생과 일치하여 앞으로의 모든 미사 성제를 아버지께 봉헌합니다.

제1기도 : <올리브 산에서 가시관을 쓰시는 예수님의 고통>

오, 예수님! (...) 십자가상 수난과 죽음에 앞서 참아 받으셨던 주님의 모든 고난과 수난을 생각하시어, 저희가 죽기 전에 참다운 통회와 진실하고도 완전한 고해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죄에 합당한 보속을 하게 하시며, 용서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아멘. 주모경-

제2기도 : <멀시 받으시는 예수님>

오, 예수님! 천사들의 참다운 자유이시며 기쁨의 낙원이시여! 악당들이 주님을 성난 사자처럼 에워싸고, 수많은 모욕과 침 뱉음과 매질과 찢겨 할퀴와 그밖에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잔인함으로 마구 주님을 괴롭혔을 때, 참고 견디셨던 공포와 적막을 생각하소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주모경-

제3기도 :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예수님>

오, 예수님! 어떠한 것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지극히 전능하신 하느님과 땅의 구세주시며, (...)오 예수님! 주님께



간구하오니, 숭고하고 성스러운 십자가상의 주님의 고난을 저희에게 되새겨주시어,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주소서. 아멘. 주모경-

제4기도 : <당신을 못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오, 예수님! 저희의 상처를 당신의 상처로써 고치시고 자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천상의 의사여! (...)그 크신 자비와 고통을 다시 생각하시어, 당신의 혹독한 수난을 통해 저희 안에 완전한 통회의 은총을 허락해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주모경-

제5기도 : <통회하는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

오, 예수님! 영원한 광명이시며 빛의 거울이신 주님! (...)주님의 그 깊은 자비와 애절한 연민으로 십자가의 오른쪽 강도에게,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며 보여주신 그 자비심을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오! 감미로우신 예수님, 죽을 때에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아멘. 주모경-

제6기도 : <예수님의 십자가상 유언>

오, 예수님! 가장 사랑하올 분이시며 우리의 희망인 왕이시여, (...)죽음의 고통 중에서도 당신 곁에 서 계시는

어머니 마리아께 주님께서는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였고, 제자 요한에게는 "이 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구세주님! 간절히 비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어머니 마리아의 영혼을 꿰뚫고 가슴을 찢었던 지극한 고통의 칼날을 생각하셔서, (...) 저희가 당하는 모든 시련 중에, 특히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 주소서. 아멘. -주모경-

**제7기도 : <예수님의 목마름>**

오, 예수님! 인류 구원을 목말라하시며 인류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괴로워하신 구세주님! 십자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목마르다"하신 그칠 줄 모르는 자비와 사랑의 샘이시여! (...) 저희가 육신의 욕망과 현세의 허욕에 불타고 있을 때에, 저희 안의 그 뜨거운 욕정을 꺼주시며 사라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 성모송

**제8기도 : <쓰디쓴 초와 쓸개를 맛보시는 예수님>**

오, 예수님! (...) 저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과 죽을 때에 존귀하신 성체와 성혈을 합당하게 받아 모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아멘. -주모경-

**제9기도 :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으심>**

오, 예수님! (...)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성부께 절망적인 변민을 큰 소리로 외치실 때 참고 견디셨던 고통을 생각하소서. 그 고통을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오 구세주 예수님, 저희가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당할 때 저희를 지켜 주소서. 아멘. -주모경-

**제10기도 : <예수님의 수 많은 상처>**

오, 예수님! (...) 온 몸의 상처로 극도의 아픔을 겪으신 것을 생각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쉽고도 너그러운 당신의 계명을 단순한 사랑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소서. 아멘. -주모경-

**제11기도 : <예수님의 깊은 상처들>**

오, 예수님! 한 없이 깊은 자비의 샘이신 주님! (...) 주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상처 속에 저희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모경-

**제12기도 : <예수님의 상처들과 피흘리심>**

오, 예수님! 진리의 거울이시요, 일치와 모상이시며 자비와 사랑의 햇불이신 주님! 주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거룩한 성혈로 붉게 물들어버린 찢겨진 엄청난 상처를 생각하소서. (...) 주님을 영원히 뵈올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저희 안에 매일 증가시켜 주소서. 아멘. -주모경-

**제13기도 : <예수님의 두려움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심>**

오, 예수님! (...) "이제 다 이루었다" 고 하시며 고개를 떨어뜨리실 때 참고 견디신 그 마지막 두려움과 고통을 생각하소서. (...) 제 영혼이 몹시 괴로운 죽음의 마지막 시각에 이르렀을 때, 제 인생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비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아멘. -주모경-

**제14기도 :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심>**

오, 예수님! 하느님 아버지의 독생 성자이신 주님!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며 주님의 영혼을 영원하신 성부께 드리시고, 단순하고도 완전한 마음의 청빈을 봉헌하시던 일을 생각하소서. (...) 이 세속에 대해서는 온전히 죽고 주님만을 위해 온전히 살기를 간절히 청하오니, 죽을 때에 주님께 돌아갈 몸인 저희를 너그러이 받아주소서. 아멘. -주모경-

**제15기도 : <예수님이 마지막 피를 쏟으심>**

오, 예수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이신 주님! 포도송이에서 짜여져 나오는 포도즙처럼, 당신의 거룩한 몸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많은 성혈을 생각하소서. (...) 그 극심한 수난과 그 거룩한 성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오, 사랑하옵소서, 저희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저희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모경-

**마침 기도 :** 오, 사랑하옵소서 예수님! 밤낮으로 흐르는 통회와 사랑의 눈물이 매일의 제 양식이 되도록 제 마음을 꿰뚫어주소서. (...) 제 생의 마지막을 미소로써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주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천상 가정에 합당한 자 되어 모든 성인 성녀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Imprimatur :** SAGII, DIE XXIX Aprilis 1930 F. J. GIRADD, V.G.

자료출처 : '성녀 비르짓다의 예수 수난 15기도, 성 알폰소 리구오리의 십자가의 길 기도' (아베마리아 출판사)



## 기도하는 맑은 마음은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캘거터의 마더 데레사

기도하려면 맑은 마음을 지녀야 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맑아져서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기도하는 맑은 마음에는 하느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거룩함이란 몇몇 사람에게만 허락된 어떤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소박한 선물입니다. 어디에서 그와 같은 거룩함이 생겨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맑은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분을 닮을 수 있도록 스스로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에게 연민과 겸손의 마음을 가득 지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회생과 사랑으로써 조금씩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기

도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기도하는데 지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지니라고 모든 사람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또 절대적으로 차지하도록 내맡겨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그분의 사랑이 당신에게 체질화되도록 하여 이 사랑에 반대되는 것일랑 결코 마음에 들어올 수 없게 하십시오. 항상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먼저 선택하여 그분이 바라시는 것을 조금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서 계속 성장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결코 의식적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죄를 지었으면 즉시 용서를 청하고 새 출발을 하십시오. 그러면 계속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지식은 사랑을 낳고, 자신에 대한 지식은 겸손을 낳습니다. 겸손은 진실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느님께서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받았거늘 과연 내 재산이라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사실을 인정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거만하게 머리를 쳐들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겸손하다면 칭찬을 받거나 모욕을 당해도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비난한다 해도 용기를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누가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찬해도 우쭐거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알게 되면 스스로 무릎을 꿇게 된다.”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회심 할 수 없습니다.

자리를 바꾸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일을 바꾸는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바꿀 것인가요?

바로 기도하면서 마음은 바뀌어집니다.” **M**

<샘에서 생기를... 에서 발췌>



# 요조 신부님과 치유의

전 세계에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요조 신부님은 "데일리 가톨릭" 지의 투표에 의해  
"금세기에 가톨릭 교회에 영향을 주는  
\스물 아홉 명의 지도자"로 선정된 프란치스코회의  
사제이십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요조신부님을  
통한 기적적인 치유를 공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메주고리에 야고보  
성당의 거룩한 성 시간의 음악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요조 신부님과 함께 하는 치유의 성시간"을  
마련 하였습니다.  
은혜로운 이 시간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장 남그레고리오



통역 남기옥 마르타



통역 낸시 라타

## 행사 당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CD
- 메주고리에 서적 보급
- 슬라브코 신부님의 책 '성시간' 마음을 다해 내 아들을 흠숭하여라'
- 판매 수익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번역/ 신경남신부

# 함께 하는 성시간

일시 : 2006년 11월 5일부터 15일

강사 : 요조 조브코 신부 OFM

주최 : 평화의 모후 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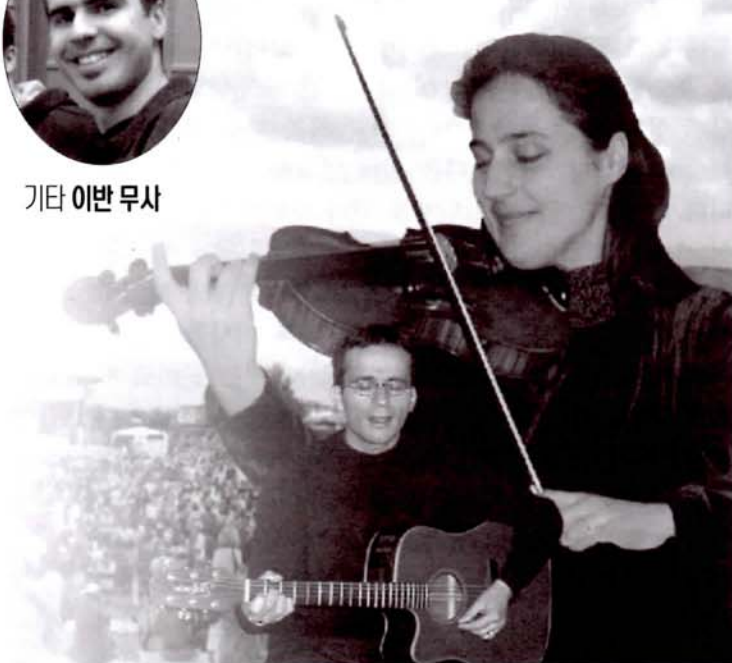
☎ 610-366-9612

E-mail : gregorynam@hotmail.com

- \* 모든 참석자들에게 요조 신부님이 준비하신 성모님의 사진과 묵주를 드립니다.
- \*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성모님의 소식지 "메우고리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 원하시는 단체나, 개인은 선교회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타 이반 무사



협찬 : 하느님 사랑의 자녀 수도원 / 평화신문 / 가톨릭신문 / 매일미사 / 동방인쇄소 / 성바오로서원 / 평화의 모후 성물센터

## 뉴욕

- 맨하탄 아씨시 성 프란시스코 한인천주교회  
135 West 31 St., New York, NY 10001  
2006년 11월 6일 월요일 7:00 Pm (한국어)  
☎ 646-509-6227
- Our Lade of Miraculous Medal  
75 Parkside Dr, Point Lookout, NY 11569  
Nov. 7, 2006 (Tue) 5:30 Pm (English)  
☎ 516-431-2772

## 뉴저지

- 티 없으신 성모성심 메이플 우드 한인 성당  
(전 오렌지 성당) (한국어)  
280 Parker Ave, Maplewood, NJ 07040

요조 신부님과 함께하는 1일 피정  
2006년 11월 8일 (수) 오전 9:30 - 오후 5:30

2006년 11월 8일 수요일 6:30 Pm  
☎ 973-763-1170

## 펜실바니아, 피츠버그

- St. John and Paul Roman Catholic Parish  
2586 Wexford Bayne Rd, Sewickley, PA 15143  
Nov. 9, 2006 (Thur) 6:30 Pm (English)  
☎ 412-276-5192

## 시카고

- Devine World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2001 Waukegan, Techny, IL 60082

요조 신부님과 함께하는 1일 피정  
2006년 11월 11일 (토) 오전 9:30 - 오후 5:30

2006년 11월 11일 토요일 6:30 Pm  
(한국어권) ☎ 847-691-5105

- Holiday Inn Convention Center  
18501 South Harlen Ave, Tinley Park, IL 60477  
Nov. 12, 2006 (Sun) 9:30 Am (English)  
☎ 630-968-5268

## 플로리다 마이아미

- St. Brendan Catholic Church  
8725 SW 32 St. Miami, FL 33165  
Nov. 14, 2006 (Tue) 7:00 Pm (English)  
☎ 305-661-0393



## "어머니, 이 사제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 기사는 미국 캔사스주 출신의 스티븐 세이어 신부가 자동차 사고로 사경을 헤멜 때에 성모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 난 후, 변화된 자신의 삶에 대한 증언을 한 것으로 EWTN방송국의 안젤리카 수녀와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안젤리카 수녀 :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스티븐 신부님이 체험하신 감명 깊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은총일 것입니다. 신부님, 이 모든 일들의 시작과 그 후에 지속적으로 있었던 감동적인 일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티븐 신부 : 저는 1985년 캔사스주의 남동쪽에서 사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 신부를 만나고 돌아가던 길에, 나는 언덕이 매우 가파르고 비탈진 위험한 시골길에서 속력을 내고 달리던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형사고로 몸이 자동차에서 튕겨져 나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심한 부상을 당한 나를 능숙하게 응급조치 해주던 간호사는 구급차가 왔을 때, 제 목이 부러졌으니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찢겨져 있었던 내 머리의 오른쪽 피부를 보고 혹시 뇌진탕이 아닌지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진찰한 담당의사는 응급구조 헬리콥터를 불렀으며 간호사에게, 제가 병원에 실려가는 동안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충돌 때의 충격으로, 의학 전문용어로 "C2 골절"이라는 목의 관절 즉, 목의 두 번째 관절이 부러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형수들이 교수형을 당할 때 목이 부러지면서 질식사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저는 10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의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저의 본당 신자들은 늦은 저녁이었지만 성당에 모여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며, 인근 교회의 신

자들과 대표자들까지도 밤을 새워가면서 저를 위해 기도 해주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여기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모든 분들의 기도의 힘입니다. 의사들은 제가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지만, 저는 예상을 초월하는 빠른 치유로 12월 2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제가 살아나도, 목은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도 절뚝거리며,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남은 일생을 숨쉬는 기계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생명이 시한부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몹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해 1986년 5월경 본당으로 돌아온 나는 며칠 후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평일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의 복음은 그 동안 수 없이 많이 읽고 들었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따 볼까 하고 삼 년 쯤나 여기 왔으나 열매가 달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아예 잘라 버려라. 쓸데 없이 땅만 썩일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을 들은 포도원지기는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제가 그 돌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 때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 버리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루카13, 6-9). 그런데 제가 그 복음을 읽을 때 갑자기 성경책이 점점 더 커지고 빛을 발산하면서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사제관으로 돌아와서, 의자에 앉았을 때 저는 곧바로 사고를 당하고 의식을 잃었을 때 제가 들었던 대화내용이 기억났습니다. 사고가 난 후, 저는 전능하신 하느님과 그분의 외아들 예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일생을 훑어 보신 하느님과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할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라도 고해성사를 보고 통회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불행히도 저에게 남은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하느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옳고 참되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분 앞에서 아무 것도 변명할 것이 없이 다만 "예, 주님, 그것은 그 동안 제가 살아 온 결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뿐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제가 살아 오면서 제 의지로 선택한 것들을 존중해주시며 "너는 네가 원하던 것을 다 가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 저는 사제였지만 하느님의 길을 가지 않고 영원한 지옥을 선택하며 제 마음대로 살아 왔던 것입니다.

그때,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는 "내 아들이시여, 당신은 저 영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어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을 구하도록 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머니, 저 사람은 사제로 살아 온 12년 동안 저를 위해 살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선택하며 살아 온 결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목소리는 "나의 아들이시여, 다시 한번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어, 그가 남은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 지를 지켜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그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 간다면, 그 때 가서 당신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머니, 이 사제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저는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서는 저의 어머니이시며 저는 완전히 그분의 것입니다. 지난 날 저는 성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제였지만, 지금은 그분을 특별히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그 동안 저의 사제생활은 정말 많이 변했으며 이제 저는 성모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을 마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 길은 한 달, 일 년, 또는 5년 동안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생이 걸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마태 5, 48)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사제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당한 후,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 난 저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두 번째,

사제도 지옥에 떨어지는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젤리카 수녀 :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봉헌한 사제가 '어떻게 지옥에 떨어지는 벌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 할 것입니다.

스티븐 신부 : 사제들이 착용하는 하얀 로만 칼라가 천국에 가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사제도 주님께 커다란 죄를 지으면 모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사제들도 십계명을 범하는 죄를 지으면 고해 성사를 봐야 합니다. 신부들은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을 전하는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하는 매우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제이기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때로는 신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며 책임이 매우 크고 훨씬 더 무겁습니다. 신자들이 신부들은 이미 구원이 보장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매우 위험하며 절대로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안젤리카 수녀 : 그렇군요! 사제나 평신도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거룩해지는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스티븐 신부 :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안젤리카 수녀 : 신부님, 제가 가장 놀란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지옥" 이라는 끔찍한 판결을 받으셨음에도 신부님께서 매우 침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죽음에 관련되는 일입니까?

스티븐 신부 : 저는 하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받을 판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진실하시기에 제가 살아 온 일들을 생각하면 그분이 말씀하시기 전이라도,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조금도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

(마리아 1999년 9-10월 97호, EWTN방송 참고)



## 예수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지음  
신경남 신부 옮김

1) 예수님, 당신께서 저의 스승이시기에 저는 당신 앞에 나와 당신을 흠송합니다. 당신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께서는 하느님의 진리이시기에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2) 예수님, 저는 당신을 흠송하고 당신과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 어두움이 가시지 않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언덕 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게쉴마니 언덕에서,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당신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은 식사를 하실 때마다 당신께 귀를 기울이시는 성부께 감사를 드리시고 빵을 축복하셨습니다. - 나의 예수님, 항상 기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으로 침묵하며 이 기도를 반복한다)



3) 예수님, 훗날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며 마귀들을 쫓아내도록 세상에 파견하실 당신의 제자들을 뽑으시기에 앞서 당신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복음사가는 그의 복음에서 저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카 6, 12-13 참조) 모든 중요한 결정에 앞서 당신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 당신 없이 행한 모든 결정, 오직 제 자신의 뜻만을 찾고 당신 없이 행한 모든 결정을 거두어들이고 성부의 뜻에 저 자신을 온전히 내맡깁니다. (...) 모든 일에서 당신의 성령으로 저를 인도주소서. 그리고 제가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르게 하소서. - 예수님,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찾으려 저를 가르치소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 청원을 반복한다.)

4) 주 예수님, 당신께서는 사랑과 인내로 당신의 제자들을 교육시키셨습니다. (...) (마태 17,1-7 참고) 예수님, 제가 기도하도록 가르쳐주소서. (...) 예수님, 아무런 기쁨과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기도는 그저 길고 지루한 것이라고 느끼곤 했던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저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제 기도는 당신과 함께 하는 살아있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만을 위한 초막을 준비하고 당신의 얼굴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용서해주소서. 이제부터는 저도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 예수님, 저는 베드로와 함께 거듭 말합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 기도를 반복한다)

5) 예수님, 당신께서 사도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인내롭게 가르치시는 동안 당신의 마음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던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당신과 저희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고, 언제나 당신의 신적 광채를 증거 하셨습니다. 저를 초대하여 기도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해 마리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역시 나는 너희들을 기도으로 초대한다. 나는 언제나 너희들을 초대하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기만 하구나. 그렇기에 오늘부터 하느님께 시간을 봉헌하도록 진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나는 너희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가르치기를 원한다. 마음으로 기도할 때, 너희들은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아, 기도, 기도, 기도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구나." (1989년 10월 25일)



마리아여, 당신께서 이 성시간 동안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저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친구로 주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기도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제 마음은 굳지 않고, 제 귀가 멀거나 제 눈이 장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 기도의 스승이신 예수님, 마리아처럼 저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소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 청원 기도를 반복한다)

6) 주 예수님, 당신의 사도들은 당신께서 얼마나 끊임없이 기도하셨는지 계속 지켜보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루카 11, 1-4 참고) - 오 예수님, 저를 깨우쳐주시어 끊임없이 기도하고픈 열망을 불러 일으켜주소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 청원 기도를 반복한다)

7) 예수님, 당신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더 잘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신의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 6, 5-8 참고) 저의 기도가 그저 빈말로 가득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음과 사랑이 없이 그저 남에게 저를 보이기 위해 위선자들처럼 기도했던 적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의 지향들을 정화시켜주소서. - 예수님, 저의 기도가 위선자나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되지 않고 오직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주소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 기도를 반복한다)

8) 예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고, 그들이 당신의 일을 계속하도록 그들을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 (...) 교황과 주교들, 사제와 수도자들, 부모와 교리교사들 위에 당신 기도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들이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소서. 그들이 당신께 마음이 멀어진 채, 그저 입술로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게 하소서. 그들이 당신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을 때,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당신 기도의 성령을 내려주소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 청원 기도를 반복한다)

9) 예수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가정, 기도모임 그리고 당신의 교회 안에서 개인 기도를 위해 시간을 마련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소서. (...) 이미 깊은 기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또한 축복하소서. 당신의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살펴주소서. - 예수님, 당신의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또한 그들의 영적 여정에서 그들을 돌보아 주소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 청원 기도를 반복한다)

10) 축복 기도 : 예수님, 당신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저희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내의 기도의 영을 치유시켜주소서. 당신 기도의 성령을 내려주시고 저희의 청을 들어주소서. 저희의 몸과 영혼을 치유시켜주소서. 아픈 모든 이들, 장애인들을 치유시켜주소서. 당신의 이름은 저희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소서. 저희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당신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M**



##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성체를 경배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대사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찬미와 기도를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은총과 치유의 성 시간

매월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성모 신심 미사 및 성시간

장소 및 문의 : 서울 옥수동 성당 (02-2297-2038)

신경남 신부님의 주례로 묵주 기도와 거룩한 미사, 성체 강복 및 치유의 시간이 있습니다.





##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김훈 울리아노 옴김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십니다.

성서묵상: 즈카르야 12:10 - 12

나는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 주민들 위에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영을 부어 주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를, 곧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보며, 외아들을 잃고 곡하듯이 그를 위하여 곡하고, 만이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 것이다. 그날에 뜨기또 별판에서 하닷 림몬을 위하여 곡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곡소리가 크게 울릴 것이다. 나라가 곡하고 가족마다 따로따로 곡할 것이다.

루카: 23:27 - 30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배어 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 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 다오.' 할 것이다."

묵상기도:

온유하시며 겸손하신 예수님! 주님은 무거운 십자가에 놀리어 두 번이나 넘어지셨고 주님의 얼굴은 피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악당들과 군중들은 고향지르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슬피 우는 예루살렘 부인들을 만나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신 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와 네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알곡한 동정심을 원하지 않고 저희 모두의 참다

운 회개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였던 사람들을 만났으나 그대로 지나쳐 버렸으니 매정한 인간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이익 때문에 형식적으로 위로했고 때론 아첨했던 저의 마음은 예루살렘 부인들처럼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주님의 진리를 벗어나 위선적, 허황한 위로를 찾아왔었습니다. 이제 저를 낚아채 주님께 간청하오니, 저에게 시련이 닥칠 때 육정을 쫓는 그릇된 위로를 찾지 않게 해주소서. 설령 이런 위로를 다른 사람이 주었다 해도 받지 말며,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도 않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 여기 십자가의 길, 제 8처에서 특히 청소년 자녀들을 둔 부모들과 중, 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안일한 삶을 위해 정의와 진리의 눈을 가리고 청소년들을 적당히 가르쳐온 부모들과 교사들을 모두 쇠신시켜주소서.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소서! 또한 비오니, 전자오락과 순간적 쾌락에 탐닉되어 하느님을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핑계 대는 젊은이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교사들과 부모들에게 은총의 힘을 주소서.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를 인도하고 싶지만 너희는 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구나. 오늘 나는 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고 너희를 부른다. 너희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너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신을 하느님께 열어드려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희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1985.7.25)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 9처로 가며)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M**



## 메주고리에 교구장의 발언은 구속력 없는 사적 견해일 뿐

메주고리에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모스타 드브노 교구장 라트코 페리치 주교가 지난 2006년 6월 15일 메주고리에 성 야고보 성당에서 견진 성사 미사 중 강론을 통해 "이 지역 관할 주교로서 메주고리에 성모 발현을 확신 할 수 없으며, 목격자들은 공공연히 발현과 메시지들을 알리는 일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모스타 주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메주고리에'교회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의 공동저자인 데니스 놀란씨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메주고리에 발현 진상 조사 권한을 교황청이 모스타 교구장에게서 박탈하여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전 유고 연방)주교회의로 이관했다. 때문에 이 발언 내용은 페리치 주교의 사적인 견해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또한 "메주고리에의 발현 현상을 조사하는 책임은 모스타 교구가 아니라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주교회의에 있기 때문에 그 주교회의의 발표 내용만이 메주고리에 발현 현상에 대해 공적 권위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모스타 교구의 전임 교구장인 파바로 자니치 주교는 발현 초기에 여섯 명의 목격 증인들의 증언을 인정하였다. (1981년 8월 16일, 글라스 콘칠라 신문). 그러나 그 후 마음을 바꾸어 증언들의 신빙성을 부정했으며, 1986년 관할 교구장과 심의위원 자격으로 당시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요셉 라칭거 추기경(현 베네딕토 16세 교황)에게 발현에 대한 부정적인 판결서를 제출했으나 오히려 심의 위원직에서 해임당한 바 있다. 그 결과 교황청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니치 주교의 심의위원회를 해산 시키고, 이 문제를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주교회의로 이관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파바로 자니치 주교 후임으로 모스타 교구장으로 새로 부임한 라트코 페리치 주교는 1993년 6월 6일 150명의 어린이들에게 견진성사를 주기 위해 메주고리예를 방문, 강론을 통해 "메주고리예를 공식적으로 기도와 예배를 드

리는 장소로 인정하며, 메주고리에 본당 전례사목 팀은 동정녀 성모 마리아의 정당한 지위를 보증하고 지키는 책임을 진다. 그리고 초자연성이 지금까지는 입증되지 않고 있다"는 1991년 4월 11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주교회의 심의위원회 주요 내용을 전해준 바 있다. 그 후 페리치 주교는 전 유고슬라비아 주교회의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메주고리에에 관한 발현과 계시에 대한 나의 확신과 입장은 초자연성에 대한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확립되었다"고 반복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1998년 5월 26일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번호 154/81 - 06419)자료에 따르면 "모스타 주교의 선언은 단지 그분의 개인 의사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 성명서는 동의와 순명을 요구하는 공식적이며 명확한 판단이 아니다. 자다르 선언문은 장래 발현에 관한 조사 필요성을 남겨놓고 있다. 그 동안 사제들이 신자들의 순례를 동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을 한다. 새로운 심의위원회가 사라예보에서 구성되었다. 모든 순례자들에게 메주고리예로의 순례를 가도 좋다고 허락하는 바이며, 이는 교회에 대한 완전한 순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페리치 주교의 강론 내용은 6월 16일자 미국 주교회의 통신사인 CNS를 통해 일차 언급됐으며, 모리스 교구는 이 강론 내용을 7월 3일 영어와 이태리어로 자료로 발표했는데 이 내용이 7월 6일자와 CNS에 또 다시 보도됐다.

[미주 가톨릭 신문 (2006년 8월 27일, 제2513호)]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의 사라예보교구장 빈코 플리츠 추기경은 매년 메주고리예로 성모님 발현장소를 찾아 오는 수 많은 순례자들을 위한 사목적 대책위원회와 조사위원회를 구성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M**)

평화 신문 <2006년 8월13일-제882호>

-'메주고리에' 소식지 제34호 참고 - 편집 주 제공 -)



## 지옥, 천국 그리고 연옥

(발현목격자 미리야나의 증언 -5-)

미리야나는 6명의 발현 목격자중의 한 사람이며 1982년 12월 성탄절에 성모님으로부터 정화의 시기에 이 세상에 일어날 10 가지의 비밀을 받고 이제 매일 발현은 끝나게 되었다. 성모님께서는 매년 그녀의 생일인 3월 18일에 오시겠다고 하셨으나, 그녀가 미래에 일어날 10가지 비밀을 알고 몹시 고통스러워하자, 현재까지 매달 2일에 발현하시어 위로와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다. 미리야나는 특별히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다.

- 편집자 주 -

질문 : 미리야나, 성모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셨나요?

미리야나 : 네, 성모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나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질문 : 당신은 지옥에 안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미리야나 :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힘과 사랑과 자비에 의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당신은 천국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미리야나 :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풀과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천국은 마치 비디오가 내 눈 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질문 : 복되신 성모님께서 왜 당신에게 천국을 보여 주셨을까요?

미리야나 : 성모님께서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여섯 명의 증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도구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질문 :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받을까요? 복되신 성모님 자신도 십자가 밑에서 가혹한

고통을 받으셨지요?

미리야나 : 성모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평화로 가득 채워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혹심한 고통이나 시련 중에도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를 느낄 수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문 : 그러면 당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명합니까?

미리야나 : 아니요.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내가 죄에 떨어질 때는 기도의 부족함과 순명하지 않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명할 수 있는 힘을 기도로 청합니다.

질문 : 당신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미리야나 : 나는 고백성사를 통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큰 힘을 연습합니다. 복되신 성모님은 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질문 :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연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잊어버렸기 때문인가요?

미리야나 :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은 영혼을 정화시켜 줍니다. 연옥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질문 : 왜, 복되신 성모님께서 당신에게 연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미리야나 : 복되신 성모님께서서는 죽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그들 자신을 도울 수가 없기에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희생에 완전히 의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우리들이 연옥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단식하며 보속과 고행을 바치기를 바라십니다.



질문 : 미리야나,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죽은 이들을 위해 보속해야 하나요?

미리야나 : 죽은 이들은 지상에 살아 있을 때와 같은 육체나 자유의지가 없지요. 그들은 살아 있을 때, 자기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을 연옥에서는 기워 갚을 수 없습니다. 1982년 7월 24일 복되신 성모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간단다. 죽는 순간에 우리들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의식으로 알게 된다. 사람이 죽더라도 또 다시 태어나 다른 육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람은 오직 한 번만 태어나고 죽은 후에 그 육체는 살아 돌아오지 않고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육체는 죽은 후에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변화된 육체를 받게 된단다. 살아있는 동안에 악한 일을 매우 많이 저지른 사람도 그가 한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백성사를 보고 죽는 순간에 영성체를 하면 그 사람은 곧장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단다."

질문 : 미리야나, 세상에 살아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보

속이 어떻게 죽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요?

미리야나 : 복되신 성모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살아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보속과 고행은,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녹여줍니다. 하느님 자녀들의 돌 같은 마음이 녹아버리면 지상에서도 위대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와 보속과 고행과 자선을 기다리는 연옥 영혼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질문 : 미리야나, 연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지상에 있는 우리를 볼 수 있다는데 그것이 정말입니까?

미리야나 : 연옥 영혼들은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들어 기도하는 동안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 발현목격자 이반은 성모님께서 연옥 영혼들을 매우 불쌍하게 보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자주 연옥을 방문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미리야나, 당신도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미리야나 : 우리도 기도와 희생으로 그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내 삶을 복되신 성모님께 바쳤습니다.



“  
**고백성사와 성체성사는  
 천국의 문을 열어준다**  
 ”

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런 모든 신비를 기도로써 터득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질문 : 미리야나, 그러기 위해서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겠네요.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하겠지요?

미리야나 : 그 때문에 복되신 성모님께서 더 굳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가 있을 뿐입니다.

질문 : 그 평화를 체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미리야나 :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안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굳센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질문 : 미리야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지요?

미리야나 :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복되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서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때, 성교회와 교계제도의 권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M**

질문 : 미리야나, 왜 그러셨나요?

미리야나 :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미래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복되신 성모님께서 당신의 모든 믿는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성모님께 바쳐주고, 기도하고 단식하며, 모든 이들이 천국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질문 :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발현은 믿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까?

미리야나 : 이 발현은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메주고리에의 비밀이 점차 실현됨에 따라 각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사명을 아는 것처럼 많은 이들은 벌써 메주고리에의 발현에 관련된 그들의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복되신 성모님의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들은 고통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큰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보상이 이 세상의 갖은 박해와 고통을 다 받아들이고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 : 주교님(모스타르 교구장 자니치 주교-은퇴)이 이러한 메시지를 믿게 될까요?

미리야나 : 복되신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교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순명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실현됩니다.

질문 : 사람들이 그런 것을 믿는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텐데요.

미리야나 :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

**게시판**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주소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Queen of Peace Missionary**  
 (평화의 모후 선교회)  
 1565 Brookside Road  
 Macungie, PA 18062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중국선교일기는 지면 관계상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 메주고리에에서의 기적적인 치유

삐에그로 조르자 (Pietro Zorza)신부

나는 세르비아 내전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날에 수산나를 만났다. 부시 대통령은 하루 전에 메주고리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유고슬라비아를 떠나도록 권하는 팩스를 보내 왔다. 전 세계에서 수 만 명의 사람들이 발현기념일에 참여하기 위해 메주고리에에 남았다.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의 내전이 일어나자 매일 미국과 각국 정부에서 사람들에게 철수를 하라고 통보했으며 국제 항공회사는 자기들은 몇 주일간 비행기를 띄우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들은 순례자들에게 메주고리에에서 지체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했다. 요조 신부는 10년간 메주고리에에 항상 문제가 있어왔지만 하느님께 기도하고 말김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시시키면서 순례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을 질타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메주고리에에 남기로 결정한 몇 사람과 함께 나는 성당을 나오다가 성당 옆 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한 아가씨와 마주쳤다. 이름이 '수산나'라는 그녀는 큰 미소를 머금고 내 손을 붙들더니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그녀와 동행한 사람이 자신들은 방금 미국에서 도착했다고 말해 주었다. 우리는 그때까지도 메주고리에에 남아있었던 이탈리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 자동차로 요조 신부를 만나러 갔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미국에서 온 신부, 요조 신부와 함께 미사를 공동집전을 했다. 나는 첫 번째 신자 좌석에 앉아 있는 수산나를 보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그녀가 휠체어 없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혹시 휠체어가 그 주변에 있는지 주의를 찾아 보았으나 없었다! 나는 그녀와 동행한 미국인 신부에게 수산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았다. 키가 크고 뚱뚱한 체격의 그 신부는 자신이 정신과 의사라고 소개하며 메주고리에에 처음 왔다고 하며 아직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어리둥절해 있었다. 그 신부는 수산나는 소녀 부분에 병을 앓고 있어서 말을 할 수도, 걸을 수도 없는 환자였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수산나가 요조 신부를 만나 후, 휠체어에 의지 하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영성체 하러 가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듯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미사 후, 나는 수산나가 담장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대단히 친근스럽고 행복한 큰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 "나는 미국에서 우리일행들과 함께 메주고리에로 순례를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요조 신부님의 치유와 축복의 시간에 참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조 신부님께서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기도를 하실 때, 갑자기 뜨거운 열기와 함께 몹시 특별한 느낌을 받은 후에 내가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수산나가 받은 치유에 크게 기뻐하며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 날 저녁 미사 중, 나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수산나가 받은 치유에 대해서 기도 시간에 공개적으로 주님께 감사드렸다. 슬라브코 신부는 신자들에게 미사가 끝나고 장엄 강복을 준 후, 그 곳에 있었던 수산나를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슬라브코 신부는 여러 나라 말로써 메주고리에에서 그녀에게 일어난 기적적인 치유를 알려주며 마니피캇 노래를 몇 번씩이나 부르게 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며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노래를 불렀다.

그 다음날 아침, 나는 다음 미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성당으로 들어갔다. 그 때 미국 순례자들을 위한 미사 중에 나는 독창으로 노래하는 한 아가씨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수산나였다. 그녀는 성모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치유의 은총을 감사드리며 노래를 바치고 있었다. 수산나 위드모어 (Susane Withemore)는 나에게 자신의 미국 주소가 코네티컷의 프랜즈빌(Conecticut Plantsville)이라고 알려주었다.

<Grazie cari figli, per aver risposto alla min chiamata /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에서 발췌>

## 나의 영원한 사랑 토마스에게

여보! 이 글을 쓰는 지금의 난 내 가슴이 매우 설레고 떨림을 느낍니다. 혹시 당신이 오늘 저녁 나의 제안에 (아니 선전 포고에) 화를 내면 어쩌나, 안 간다고 하면 어쩌나, 어떻게 오해 없이 내 본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당신 요즘 특히 더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난 무척 마음 아팠습니다. 이전의 난 내 자신만 늘 힘들다고 생각했기에, 당신은 늘 자신 있어 보였기 때문에, 당신을 돌아 볼 여유가 내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나 또한 어떤 위로와 사랑에 목말라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빠, 토마스!

당신이 나를 메주고리에 보내주기 전, 문득 거실에 있는 성모님 상을 바라보던 나는 성모님과 눈이 마주 칠 때면 왠지 마음 속 깊이 느껴지는 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메주고리를 가게 됐을 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성체가 된지, 미사 예절이 된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묵주 기도 하는 것만 알고 갔습니다. 내일 메주고리로 떠나는 당신과 똑같이 나도 그저 하나의 성지려니 생각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난 내 자신이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받았, 정말 아주 따뜻 받았고, 또 받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나를 힘들게만 한다고 생각했던 나의 남편인 토마스 당신이야 말로 얼마나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와서도 또 다시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허욕이나 화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내 마음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윽한 그 어떤 평화와 담대함이 자리잡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보내 준 메주고리에 순례는 나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값지고 귀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큰 축복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도, 우리들의 아이들도, 부모님도, 친구도, 대부님도,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이 받고자 하는 그 위로를 줄 수 없을 겁니다. 아니, 받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찾아 간 그 곳, 메주고리에는 당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그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당신이 받고자 하는 위로와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아는 당신은 내가 그 선물을 당신을 통해 받은 것처럼 나도 그 선물을 당신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성서나 예수님께 대한 그 어떤 지식도 필요로 하지 말고 지금은 그저 당신의 마음을 11일간 메주고리에 내려 놓고 꼭 쉬다가 오시기를 바라요. 당신, 그동안 이런 저런 걱정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마음속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담아 두지도 말고 그냥 꼭 쉬고 돌아 오세요. 그렇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 올 때는 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에겐 안식년이란 것이 있어 1년씩 쉬는 기간이 있다고 해요. 지금의 우리에게 그렇게 긴 안식년을 가질 여유는 없지만 이번 순례는 성모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열흘간의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쉬었다 오세요.

여보, 더욱 더 당신을 사랑할거예요.

당신의 아내  
세실리아.  
2006년  
9월 22일







## 사랑하는 나의 아내 세실리아!

당신이 보내주었던 12일간 천상으로의 휴가를 마치고 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 가게를 보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문득 메주고리에의 평화로운 마을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오늘 아침 당신이 웃으면서 농담처럼 얘기했지요? 우리 정말 그곳에서 소박하면서도 작은 성물 가게 하면서 성모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까요? 이번 순례에 함께 했던 어느 자매님의 말처럼 그곳에다, 한국 순례단을 위해 라면과 김밥에 떡볶이, 팔빙수까지 팔면서요. 그리고 매일 아침이면 성모님이 발현하신 언덕과 십자가 산을 오가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의 14처의 고통을 묵상하면서요. 저녁에는 성모님의 품 안에 안겨서 사랑하는 당신과 우리아이들이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고 너무나 거룩한 미사와 성시간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 갈까요?

사랑하는 세실리아,

우리의 생활이 교만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어려워졌지만 나는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순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도 없이 성당도 잘 안가고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던 나에게 이런 시련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을까요! 그저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물질을 쫓아 다니며 살고 있었겠지요. 이번 순례를 함께하신 메리놀 선교회의 김 알폰소 신부님께서서는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특별히 사랑하시어 당신의 자식으로 삼기 위한 과정이니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나는 이번 순례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당장 가게 렌트비 낼 돈도 없었는데 당신이 덜컥 메주고리에의 순례를 다 예약해 놓았다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발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나는 기가 막혔지요. 이럴 때는 화를 내야 하나 어쩌나 하고 생각하다 문득 사랑하는 아내가 저렇게 원한다면 들어 주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순례

의 길을 떠났지만 혼자서 고생하는 당신 걱정에 늘 마음이 무거운 순례를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자는 내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나를 이곳에 보내준 당신의 뜻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집에서 고생하는 당신에 대한 보답일 것 같아 나름대로 잘 지내고자 노력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를 메주고리로 보내기 위해 당신이 지불한 순례비가 팔순이 다되신 어머니께서 외국에서 딱한 처지에 놓인 아들을 위해 보내주신 돈이었다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캐나다 이민은 당신들을 위해서는 한 푼의 돈도 쓰지 않으시면서 하는 일 없이 지내는 형을 위해서 돈을 쓰시는 부모님에 대한 반발로 떠난 길이었지요. 의절하고 지내는 형과 화해하고 우애 있게 지내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그런 소리하시려거든 전화도 하지 말라면서 전화를 끊었던 자존심만 강한 못난 자식에게 어머니는 누나를 통하여 오히려 돈을 보내셨습니다. 그 돈으로 나는 메주고리에의 순례를 다녀왔구요.

정말 대책 없는 당신,

나를 메주고리로 보내놓고 당신 혼자서 고생하며 가게를 꾸려갔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 놓고도 성모님이 도와주시어 꼭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에 감사드린다는 당신의 모습에서 오늘 나는 성모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영적으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입니다. 메주고리를 다녀왔다고 해서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사람이 확 바뀌겠습니까? 하지만 메주고리에의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와 회개와 단식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하는 세실리아, 오늘밤 우리 함께 묵주기도를 바칠까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말예요.

나의 아내 세실리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M



## 임자... 고맙구려

한적한 시골의 외딴 곳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 앞 마당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손질된 나무들과 꽃들이 예쁘게 정돈되어 있다. 늦은 시간인 듯 창문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 나오고 방 안에는 머리가 허영게 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란히 누워있는 것이 보인다.

할아버지는 옛일을 회상하듯 먼 곳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이야기하고 있지만

할머니는 이미 잠이 든 듯 눈을 감고 있다.

할아버지 : 허허.. 그때 기억나요? 내가 할멈과 결혼하고 처음으로 회사에 출근할 때 말이오. 넥타이를 못 매서 허둥지둥하고 있을 때.. 당신이 그 고왔던 손으로 정성스레 넥타이를 매주던 모습이 어렴풋이 생각나는구려.. 그때가 참 좋았지..

할머니 : .....

지난 일들을 회상하던 할아버지는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한다.

할아버지 : 허허.. 새삼스럽게 그때 일도 기억나는구먼.. 우리 첫째가 대학교 졸업할 때.. 둘째 놈에게 교통사고가 났었지.. 그때 할멈이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누가 보면 아들 세 명 있는 거 다 죽은 줄 알았을 거야. 허허허.. 그렇지?

할머니 : .....

할아버지 : 아... 막내가 대학 들어간다고 시험 공부할 때도 기억나는구려... 당신이 막내 시험 때문에 100일 기도를 시작할 때 나한테 많이 혼났잖소.. 허허.. 그때 당신이 고생하는 거 보고 있자니 막내가 얼마나 밍던지.. 막내가 시험치는 날.. 한동안 잠도 못 자고 기도한 덕에 눈 밑까지 거뭇거뭇해진 당신이 막내 놈을 학교까지 바래다 주지도 못했다고 발을 동동구르며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막내가 당신 정성 때문에...그래서 대학에 붙은 게지..

할머니 : .....

잠시 눈을 감고 말이 없던 할아버지는 다시 생각난 듯

말을 잇는다.

할아버지 : 아, 우리 큰딸 시집가던 날이 생각나요? 그 날 절대로 울지 않는다고 하던 당신 얼굴에서 결국 눈물 몇 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봤지.. 그때 이후로 나는 당신이 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허허...나랑 살면서 눈물이 모두 말라버렸구나..

할머니 : .....

할아버지 : 허허... 그때가 마치 옛그제처럼 생각나는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러 갔구려... 언제부터인가 당신 친구들과 내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우리 곁을 먼저 떠났잖소.. 그때부터인가... 당신 머리에도 점점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말은 하지 않았어도 마음이 짠했다오... 참, 기억나요? 친구들 장례식 갈 때마다 당신이 점점 힘을 주어 내 손을 꼭 쥐었던 것 말이오... 허허..

할머니 : .....

지그시 눈을 감고 있던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살며시 손을 내밀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 허허... 이제 내가 당신의 손을 꼭 쥘 차례구려.. 지금까지의 인생길.. 나 혼자가 아니어서 참으로 행복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임자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는구려...

할머니 : .....

할아버지 : 임자...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인생길.. 떠나기 전에 꼭 간직하고 갔으면 좋겠구먼.. 임자.. 잘가시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오...

아무런 말이 없던 할머니의 입가에 스쳐가는 작은 미소가 보이며 잠든 듯 평온한 얼굴이 된다.

할아버지 : 임자... 고맙구려.. 정말 고마워.. 내 금방 따라갈 터이니 잊지 말고 나를 기다려주구려..

우리 다시 만납시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이슬처럼 맺혀 있던 눈물이 주름을 타고 흘러 내린다... **M**

<megapass.net에서 발췌>



### 건망증

최강 신부 한국외방 선교회

요즘 건망증이 장난이 아니다. 가끔씩 내 또래의 친구들이 전화기를 손에 들고 전화기를 찾는다거나 전화벨 소리가 냉장고 안에서 울린다거나 하는 소리를 들으면 치매라며 놀려주곤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 내 건망증도 보통이 아니다. 나는 주로 물건을 챙기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나는 집을 나갈 때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센다. 밖에 나갈 때 챙기는 것을 깜박하고 그냥 나가서 가끔씩 곤욕을 치르게 되는 물품들을 하나씩 손으로 짚어보면서 세는 숫자다. 혹시라도 숫자 세는 것마저 잊어버릴 정도로 바쁘게 나가는 날에는 어김없이 다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빠트리기 일쑤다.

첫 번째는 지갑.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한 뒤부터 생긴 현상인데 지갑을 안 챙긴 날은 여학생 수녀님들이 커피 한 잔 마시러 구내식당에 내려가자는 제의를 할 것만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 불안하고 또 그런 날은 사고 싶은 책이 눈에 잘 띈다. 지갑을 챙기지 않은 날은 집에까지 다시 돌아와야 하는 몸의 수고를 감수해야만 한다.

두 번째는 손수건. 이건 신부가 된 다음부터 잘 잊어버리는 것 중의 하나다. 대학 시절에 어떤 여학생이 괴로운 일이 있다면 나를 붙잡고는 무작정 눈물부터 흘리기 시작하기에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쭈욱 내밀어 준 적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었다. 그 뒤로 밖에 나갈 때 마다 혹시나 또 누가 나 붙잡고 울까봐 챙기기 시작했었다. 하지만 그 날 이후로는 이처럼 내가 손수건을 챙기는 이유와는 달리 주로 땀을 닦거나 코를 푸는 등 본래 용도로만 써 왔기 때문에 손수건이 없으면 옷소매가 빨리 더러워진다.

세 번째는 목주. 외출할 때 핸드백을 드는 여성 신자들이 들고 달리 남자 신자들은 주로 호주머니에 목주를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옷을 바꿔 입고 외출할 때 거의 심중

팔구 옷과 함께 옷장으로 모셔놓고는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한바탕씩 친다. 없어도 손가락 열 개가 있으니까 큰 불편은 없지만 호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는 재미를 느낄 수 없게 된다.

아무튼 건망증으로 무엇인가를 자주 잊어버리게 되면 몸이 고생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한 가지, 잊어버리면 심하게 마음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사실, 또 내가 신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을 경우다. 가끔씩 내가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을 따르겠다고 길을 떠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영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을 때 몸은 좀 편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배반한 베드로가 가졌을 극심한 마음 고생을 한 동안 겪어야만 한다. 그 마음 고생으로는 결코 행복해 질 수가 없다. 그 마음 고생이 지갑 챙기기를 잊어버렸을 때 하게 되는 몸 고생보다 결코 수월한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무래도 내 신앙의 건망증세도 점점 심각해지는 듯 하다. 하느님께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그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세례와 서품 때의 첫마음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에게도 지옥과도 같은 것이다.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순간의 쾌락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불행한 사람들이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지옥의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빛의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 주님 챙기기를 잊지는 않았는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세례와 서품 때의 첫마음을 잊지는 않았는지 숫자를 세며 물건을 챙기듯 매일 손으로 마음을 짚으면서 '나의 주님'을 불러봐야겠다. 주님을 챙기는 마음에 행복이 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시편162) **M**



## 15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 2003년 수원교구 40주년 기념 신앙 체험 수기 -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신 어머니를 따라 유아영세를 받았던 나는 가톨릭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상태로 성당을 따라 다녔었다. 고향의 성당에서 결혼 후 부모, 형제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함께 모이는 일이 점차 없어지고 마음의 상처만 깊어졌다. 막내나 다름없는 나는 이런 일들이 결혼 생활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어려운 경제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의 거처와 직장을 부모, 형제가 없는 서울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족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살 수 있기를 기도했다. 이듬해부터 우리 부부는 그룹 성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그 후 1994년 4월 12일 나는 새벽에 꿈속에서 "예수님께 기도하여라"는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그날 한 자매님이 수원교구의 김남수 주교님께서 인가하신 "15기도"라는 책을 여러 권 가져와서 "반장께서 전과 좀 해주세요"하고 가셨다. 그 날 저녁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인 아이들과 아내와 나는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가족회의를 했다. 기도와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우리 가족은 하루도 빠짐 없이 365일간 해야 하는 "15기도"를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그날부터 매일 저녁마다 십자가와 예수성심상, 성모상을 모셔놓고 촛불을 켜고 모여 앉아 "15기도"를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비르짚다 성녀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15기도에 있는 많은 은총들도 좋았으나, 특별히 365일간 이 15기도를 바치는 사람의 구원과 친척들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이 너무도 좋았다. 내 힘으로는 해결 못하는 부모님과 형제, 가족들과의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운 문제들의 해결과 우리 가정의 장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인도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15기도를 시작했다. 직장에서의 퇴근시간과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거리, 또한 기도에 익숙치 않았던 우리 아이들의 적응과 참여를 생각할 때, 1년간 해야 하는 이 기도를 하루도 빠짐 없이 가족들이 모여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서로 격려해주고 어려움을 나누면서 이 기도를 끝마치는 것이 우리 가족들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목표이자 사명이 되면서 지속할 수 있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드디어 15기도를 끝마치는 날, 우리 가족은 진심으로 기쁨의 환희 속에서 이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총을 느꼈다. 각자의 어려운 문제들과 가정의 많은 어려움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눈 녹듯이 해결되었으며, 우리 가족들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평화를 마음속 깊이 체험했다. 일년 동안 해야 하는 의무기도는 끝났지만 그 후에도 우리 가족은 누가 제의하기도 전에 저녁때면 자연스럽게 십자가 앞에 모여 15기도를 계속하였으며 마침 성가까지 부르니 더욱 기쁨이 충만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우리 가족들이 15기도를 마치고 촛불을 끄기 전이었다. 갑자기 눈 앞에 어떤 성당이 보였다. 내가 그 성당의 문을 열고 성전으로 들어가보니 제대 오른편 성모자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한 수도자를 보았다. 그분은 기도를 마치고 제대 앞 중앙 쪽으로 오더니 십자가상 앞에서 나를 향해 돌아섰다. 아무 말없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과 마주치던 순간, 그분이 파두아의 성 안토니오 성인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알게 되었다. 13세기경의 수도자 복장에 부리 부리한 눈, 깎아버린 머리 윗부분, 발이 없이 지면에서 약간 떠있는 그분의 모습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내가 안토니오 라는 본명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성인이신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나에게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며칠 후 우리 부부는 한 동네에서 같이 살고자 하는 절친한 친구 부인의 권유로 분양 받아놓은 일산동 동문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초행길인 일산으로 가던 중 아주 눈에 익은 듯한 일산동 성당을 발견하고는 먼저 그곳을 들리게 되었다.

성당입구의 성모동굴 앞에는 아이들 엄마의 주보성인인 기도하는 모습의 벨라뎃다 성녀가 있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을 들어서던 나는 바로 그 성당이 며칠 전 15기도 후 환시상태에서 보았던 곳이고 그 성당의 주보성인이 파두아의 성 안토니오 성인이라는 사실에 너무 너무 놀랐다. 나는 이러한 일들을 되돌아 보며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일산으로 "떠나라"는 예수님의 이끄심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사도 신경의 "전능하신 천주성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 동정 마리아...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등등의 기도문을 진실되이 믿었다. 4년간 살았던 일산 생활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되어 하루도 빠짐없이 15기도를 바치고 매일 미사에 참석하면서 15기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열심히 뛰었다. 그러던 중, 화정동 성당에서 15기도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약 40명이 모인 기도회에서 이 기도를 전파하게 되었다. 그날 주님께서는 세 사람의 이상한 언어와 세 사람의 해석의 은사로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다.

"영원한 구원은 십자가의 믿음에 있다.", "기도는 내 상처에 향유를 붓는 것이다.", "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라." 라는 말씀이 떨어지자 그곳에 모여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통회의 눈물과 성찰을 하였고 15기도서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약 한달 후 화정동 성당 어느 교우의 가정에서 어린 자폐증 환자에게 치유의 은사가 일어났다. 이때에도 수천 권의 15기도 책이 화정동 성당 신자들에게 전파되었다. 주엽동 성당에 다니던 어떤 가정은 가족이 어렵게 1년간의 15기도를 끝낸 후 감사의 표시로 한국에서 초판 발행되었던 15기도 책을 나에게 전해 주셨다. 이 기도서를 발행하여 전파를 하고 있던 우리 팀들은 주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을 받고 무한한 기쁨과 격려해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초판을 기초로 다시 재편집을 해서 출간한 15기도는 주님의 은총으로 약 20,000권이 전파되어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큰 기쁨을 맛보았다. 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물질만능의 문명 속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대적인 빈곤감과 어려움들 속에서 지내던 나의 지난 과거들을 되돌아 보았다. 그리고 주님을 전하고자 했을 때 있었던 정말 어려웠던 일들과 이 15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다. 하루의 생활이 어렵고 지칠 때, 거듭 죄를 지었을 때마다 아직도 믿음이 약한 내 자신이 부끄럽지만 그 순간마다 항상 내 곁에 계시며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용서를 청한다. 그리고 그 분이 좋아하시는 생활과 원천의 능력의 길로 나를 인도해주시기를 지속적으로 청해본다. 15기도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습관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 드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많은 은총과 체험들을 이웃과 모두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이다.  
<피운 글> M

###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1565 Brookside Road, Macungie, PA 18062

발행처: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인/편집인: 남홍익 그레고리오

지도신부: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서울 옥수동 성당 주임)

자문위원단: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윤종식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 마르타(선교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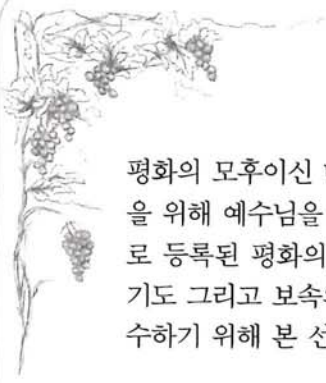
편집부장: 최성득

편집위원: 최레지나, 황로사, 남지혜, 송시원,  
남미자, 이규현

인쇄: 미주가톨릭출판사, 영인문화 인쇄사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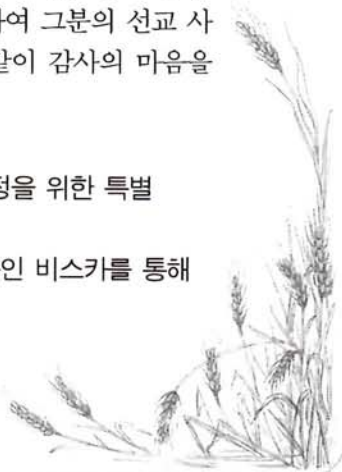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 가톨릭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사명은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회개, 신앙, 기도 그리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본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하고자 합니다.

- |                                 |                                |
|---------------------------------|--------------------------------|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발행 및 무료보급   | 5.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 육성 및 운영       |
| 2. 신앙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에 순례 안내         | 6.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 3. 메주고리에 관련 서적 출판 및 보급          | 7. 메주고리에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
| 4.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전파를 위한 미디어물 제작 | 8. 기타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

본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선교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저희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를 보내드립니다.
2.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와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회원들과 회원 가정을 위한 특별 미사를 봉헌합니다.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을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를 통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5.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RS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평화의 모후 선교회)**

1565 Brookside Road, Macungie, PA 18062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회원 가입서

영문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A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전화(H): \_\_\_\_\_ 전화(O): \_\_\_\_\_ 날짜: \_\_\_\_\_ 년 월 일

E-mail: \_\_\_\_\_ 소속 본당: \_\_\_\_\_

해당란에 V표 하여 주십시오. 월( ) 년( ) 기타( ) 금액( ) 회원번호( )



##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동훈, 강옥주, 강카타리나, 강프란시스, 권혁구, 권효정, 길마리아, 김갑식, 김마테라, 김금성, 김금순, 김미정, 김성자, 김순자, 김순희, 김아가다, 김영옥, 김유경, 김유정, 김율리아나, 김은순, 김정미, 김주희, 김준홍, 김진희, 김창성, 김호영, 김혜숙, 김혜정, 노마리아, 노안나, 라파엘, 류수연, 류태홍, 마헬렌, 민정숙, 박세실리아, 박송자, 박영옥, 박지수, 박희우, 박청희, 백안셀모, 석연숙, 성스테파니아, 손요한, 송테레사, 송정순, 송필피, 신요한, 신순덕, 신안나, 안소영, 엄봉화, 엄재희, 연재희, 오루시아, 오미숙, 유광문, 익명, 유대수, 유정숙, 윤경만, 윤석중, 윤병희, 이경, 이테레사, 이동우, 이성광, 이마리아, 이미애, 이성선, 이인순, 이은숙, 임효경, 장기홍, 장순남, 전정숙, 전종례, 전현숙, 정유진, 조안나, 최경숙, 최루시아, 하봉호, 한간다, 브루클린 성당 바다의 별pr, 한테레사, 한순애, 한연희, 황계숙, 황혜정, 허정희, 김 알폰소 신부님, Wlly Sunwoo, Heung Park, Kyong Larcenaire, Eilleen Cho, Paul Ryou, Lee Paul, Song Kwang Yi, Tak Lee, Dena Kwon, Lee Tina, Mee Kang, Y. Lee, Eun Shon, Joon Hwang, Hong Gyong Buk, Kyung Cheon,

소식지 제 35호는 20,000부를 발행하여 메주고리에와 괄, 사이판을 포함한 미주 전지역 및 한국, 중국, 캐나다, 독일, 영국, 이태리, 스웨덴 지역에 무료 발송하였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왔다"고 말씀하신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교회를 위하여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35호 후원금	\$ 7,827.00
지출 (35호 소식지)	
소식지 인쇄, 발송 및 후원회원봉투 인쇄	\$ 8,600.00
통신비	\$ 360.00
교통비	\$ 520.00
사무용품 및 기타 비용	\$ 470.00
• 지출 합계	\$ 9,950.00
• 35호 부족금	- \$2,12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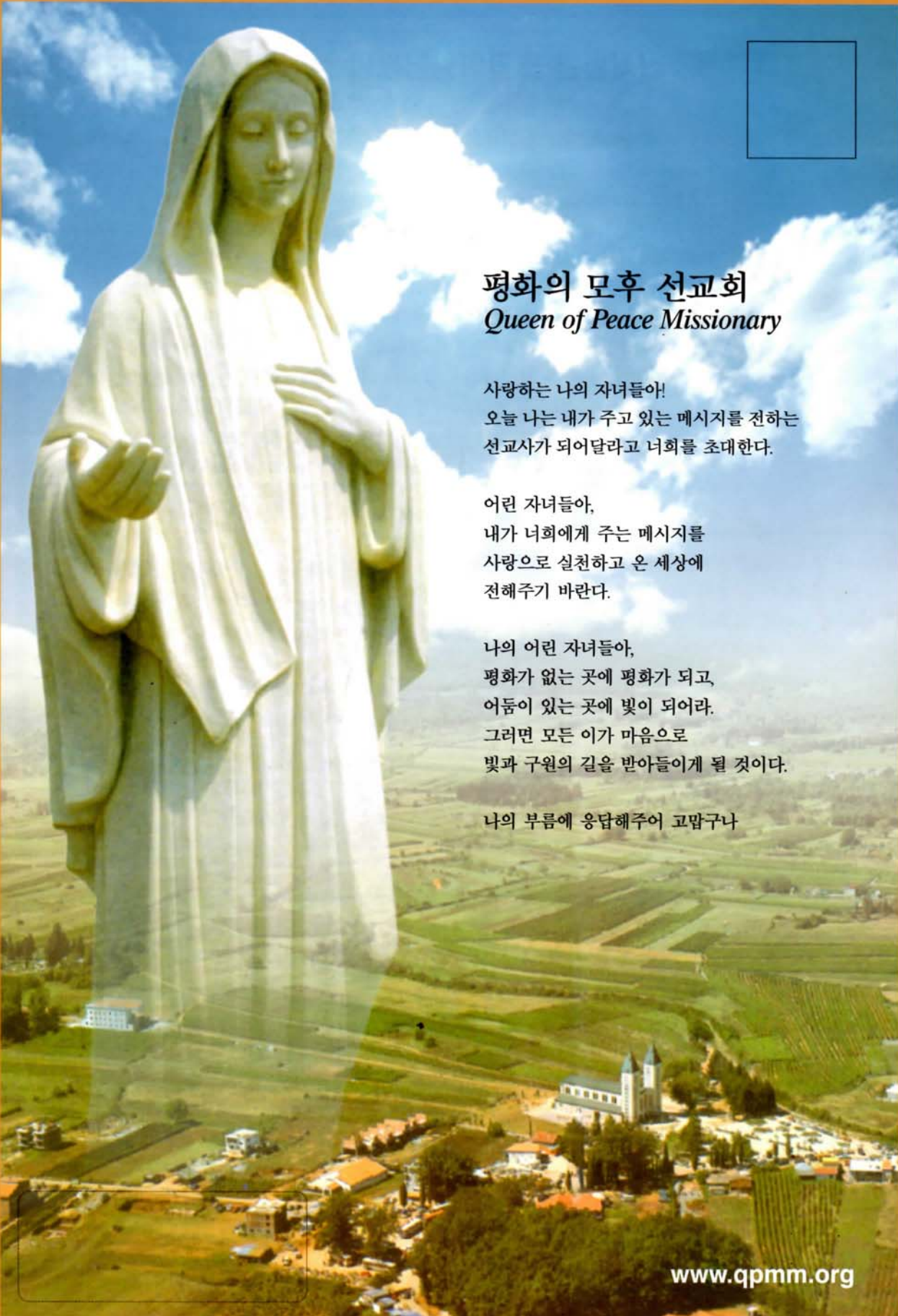


##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다시 드리웁니다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으니 주시는 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다시 드리웁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제 영혼을 바치웁니다.  
 하느님은 제 아버지이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제 사랑입니다.



샤를르 푸코의 기도



##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y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내가 주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너희를 초대한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사랑으로 실천하고 온 세상에  
전해 주기 바란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이가 마음으로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USA

**남 그레고리오 (Gregory Nam)**

1565 Brookside Road, Macungie, PA 18062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E-mail : gregorynam@gmail.com

KOREA

**노선택 마리노**

서울시 성동구 옥수 1동 515-1 B1  
Tel. 02-2281-3236 / Fax. 02-2281-3246  
E-mail : soulbassmaster@hotmail.com

CANADA

**이준용 콜베**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www.qpmm.org](http://www.qpmm.org)